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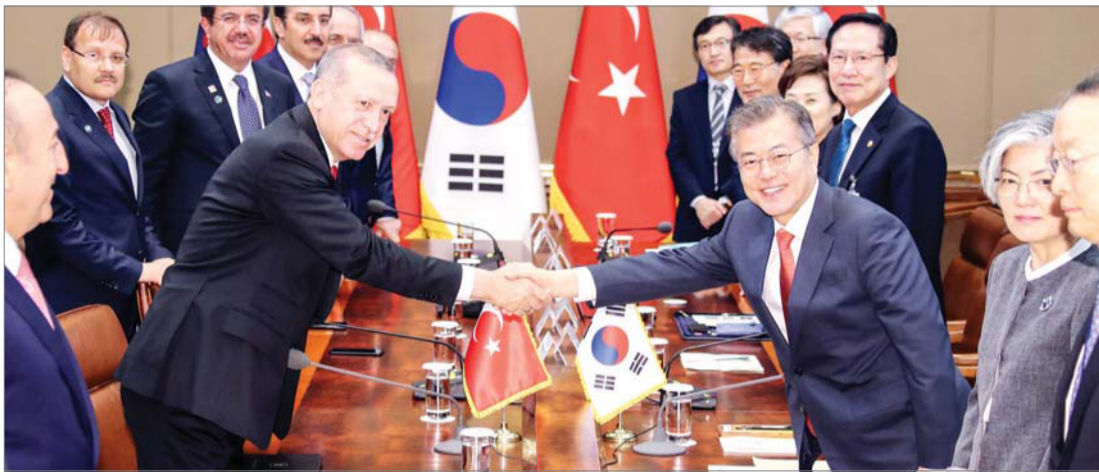
[한반도 봄바람] 남북정상회담 계기 韓경제 미치는 영향은 03



Economy

|             |                 |           |                      |
|-------------|-----------------|-----------|----------------------|
| 코스피         | 2505.61 (-9.77) | 코스닥       | 871.03 (-4.92)       |
| 금리 (연고대 3년) | 2.24 (+0.02)    | 환율 (원/달러) | 1076.10 (+8.10) (2일) |

# 포스코 차기회장 구자영·김준식·장인화 ‘3파전’



약수하는 한-터키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나 확대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태준·정준양·권오준 前회장 대리전 양상

포스코가 권오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선언으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에 돌입했다.

정권 초기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회장 중도 낙마 사태를 이번 예야말로 끊겠다며 예전보다 한층 투명한 선발 절차에 공을 들여 후보군 물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임 회장들의 ‘대리전’으로 3파전을 형성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포스코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 이어 27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최근 열린 1차 회의에서 승계 카운슬 운영 방안과 CEO 후보 요구 역량 및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면 2차 회의에서는 후보군 선정 리스트를 공유하고, 보강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가운데 내부에서는 장인화 철강사업부문 2부부장(대표이사 사장), 외부에서는 김준식 전 사장과 구자영 전 SK



구자영 前 SK이노 부회장 김준식 前 사장 장인화 사장

이노베이션 부회장 등이다. 포스코 철강 2부부장을 맡고 있는 장인화 사장은 OB출신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부측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일명 ‘포마’(포스코 마피아)가 아닌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출신으로 개혁을 이루기 적당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인화 사장은 권오준 회장 체제의 실체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외부에서는 구자영 전 SK이노베이션 부회장과 김준식 전 사장 이 거론되고 있다. ‘철강왕’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사단인 구자영 전 부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이다. 구 전 부회장은 버클리대 재료공학박사 출신으로 1988년 포스코에 스카우트돼 1993년까지 상무로 재직한다.

특히 포스코는 전통적으로 엔지니어 출신이 회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구 전 부회장도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9년 정준양 회장이 선임됐을 때도 엔지니어 출신인 정 회장과 재무·관리 출신인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이 경쟁했다. 당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도 검증과정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이나’ ‘대내외 관계 개선 및 조직 관리’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3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면반박

# “국제기준 따른 것... 분식회계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위반’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계 기준 인식 및 적용에 대한 차이로, 회사는 외부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이행했다”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8면>

금융원은 전날 적자를 내다 자회사 지분가치 변경으로 대규모 회계상 이익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금융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 삼성·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 때 관련 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한 뒤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내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에 의견에 따라 충실히 이행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른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Biogen)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합작사 바이오젠이 콜옵션(50%-1주)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병화 상무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3대 회계법인(삼정·안진·삼일)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회사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으며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에서 회사 측의 입장을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용 기자 parkmi7854@

## 엘리엇의 파상공세

# “삼성합병 부당 개입... 韓정부 상대 ISD 추진”

(투자자-국가 간 소송)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당시 합병에 반대하던 펀드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

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의사가 있는 지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이날 낸 발표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FTA를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며 “정부가 FTA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엘리엇 및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며 특검은 국민연금이 직권을 남용해 합병에 찬성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1심, 2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안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엘리엇이 ISD에 나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엘리엇의 중재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잘못”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 소액단기보험사 등 특화금융사 나온다

##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 온라인전문보험회사 활성화 투자자문서비스도 개인 확대

정부가 혁신적 참가자의 금융시장 진입이 쉽도록 문턱을 낮춘다. 애완동물 전문 보험회사나 주식중개 전문 증권사, 1인 투자자문사의 등장이 예상된다. 다만 은행의 인가 단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유관기관 공동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운영해 이번 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금융적폐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진입장벽 완화,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기존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방식에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업의 경우 취급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연구원과 관련협회 대표가 참석해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련한다. 보험기간, 연간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신생업체의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인가정책도 운영키로 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됐으나 1개(교보라이프플래닛)에 불과한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설립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간단 소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필요 시 온라인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200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재보험, 연금 등 시장

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도 적극 허용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중개전문특화 증권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사무증권·펀드지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잠정)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일반 증권사에 적용되는 규제도 선별 적용키로 했다.

법인 영업 중심이었던 투자자문서비스도 개인으로 확대한다.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 촉진을 위해 자문업의 등록 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 요건을 8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팻(애완동물)신탁, 후견 신탁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차등하는 방식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증권·보험 등 진입장벽 낮춰... '금융의 메기' 키운다

##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의미

전 금융권 특화 금융사 출현 가능  
업권 불문 자본금요건 일제히 낮춰  
은행업 진입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간 꿈쩍하지 않던 금융업 진입규제가 빗장을 풀었다. 그간 감독당국의 전유물이었던 금융업 진입정책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기로 했다.

한계는 아직 남아있다.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은행업 진입규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적극 추가 인가 방침을 밝힌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현행법 하에서도 수요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2일 내놓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핵심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업권에 특화 금융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처럼 업권마다 경쟁을 촉진할

<업권별 산업현황>

|      | 은행      | 보험                                | 증권    | 지문·일임   |
|------|---------|-----------------------------------|-------|---------|
| 진입형태 | 인가      | 허가                                | 인가    | 등록      |
| 업체수  | 19개     | 56개                               | 55개   | 179개    |
| 총자산  | 2,739조원 | 1,110조원<br>(생보 883조원<br>손보 277조원) | 390조원 | 7,245억원 |
| 당기순익 | 11.2조원  | 7.8조원<br>(생보 3.9조원<br>손보 3.9조원)   | 3.8조원 | 600억원   |
| ROE  | 6%      | 5.71%(생보)<br>11.39%(손보)           | 7.7%  | 12.2%   |

\* 2017년말 기준(지문·일임업 당기순이익·ROE·CR3 2017.1-3분기 기준)

수 있는 '메기'를 키우겠다는 의미다.

먼저 진입정책 결정을 민간 위원회로 넘겼다. 지금까지는 외부 참여 없이 금융당국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기존 금융회사가 지대(地代)를 향유하는 '적폐'가 가능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진입정책 의사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 정책을 결정한다.

업권을 불문하고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자본금요건은 일제히 낮아졌다.

보험업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일반 보험사 자본금의 100분의 1수준인 일본 소액단기보험사를 예로 들었다. 여전히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전문보험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자본금을 낮춰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화증권사의 경우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도 기존 3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는 신탁 기능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인가과정도 손을 봤다. 그간 비공개였던 인가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공개하고, 쟁점이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한다.

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예비인가 후 일

정기간 내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정형화된 인가의 경우 금융위원장 전결 등으로 신속처리토록 한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컸던 은행업 진입규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20년 만에 내놓은 진입규제 완화인 만큼 은행업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크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업의 '만행' 격인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역시 실제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라 게 금융권 반응이다. 은산분리 법안은 손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은산분리 원칙을 헐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현행법 내에서 시장 수요가 있다면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일문일답

### “인터넷전문은행, 현행법 내 추가진입 적극 검토”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혁신적 참가자의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안은 뉴플래이어, 기존 영업자, 금융당국 등 3부문의 고리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인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법 하에서 추가 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화신탁회사는 관련 당

국과 세제 혜택을 협의해 유인 동기를 마련한다. 아래는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은산분리 완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은산분리 원칙을 헐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추가 인가 과정에 반영하면 되고, 우선은 현행법 내에서 시장 수요가 있고 경쟁도 평가를 거쳐 진입 여력이 있다면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런 상황에서 추가 인가해도 되나.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실제로 지적이 나왔는데 통계 기술상의 문제도 있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추산에서 빠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금리대출의 비중이 높다고 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독자적 영역은 나름대로 갖춰가고 있으나 더욱 더 강화해야 이들 은행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정책 결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나. 강제성이 있나.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특별위원

회 형태로 운영한다. 그동안 개별사에 대한 인가는 당국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해 왔다. 앞으로 평가위에서 산업구조 분석 등을 통해 인가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인가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평가위 구성할 때 중요 항목까지 포함해서 공개하겠다.”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미룬 이유는.

“은행법상 은행업 업무가 예금, 기타 유가증권 발행, 대출 등 포괄적으로 돼 있다. 이를 세분화할 경우 인위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뉴플래이어의 장기적 생존 부분을 구체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은행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부 모자

르듯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만 몇 달 동안 깊이 논의했으나 우선 산업 분석, 해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특화신탁회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후견 신탁 등 뉴플래이어에 세제혜택 등 동기부여 있나.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금전 신탁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부동산이다. 비금전 회사의 신탁 발달이 안 돼 있다. 그러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재산관리기구로서의 신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비금전신탁의 가능성을 확연히 높여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신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제 혜택 등은 구체화 단계에서 관련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구분       | 2017년 |      | 2018년 |      |      |
|----------|-------|------|-------|------|------|
|          | 3월말   | 12월말 | 1월말   | 2월말  | 3월말  |
| 기업대출     | 0.71  | 0.47 | 0.56  | 0.64 | 0.56 |
| 대기업      | 0.67  | 0.46 | 0.44  | 0.45 | 0.45 |
| 중소기업     | 0.72  | 0.48 | 0.59  | 0.69 | 0.59 |
| 가계대출     | 0.26  | 0.23 | 0.25  | 0.28 | 0.25 |
| 주택담보대출   | 0.20  | 0.17 | 0.18  | 0.19 | 0.18 |
| 가계신용대출 등 | 0.43  | 0.38 | 0.42  | 0.49 | 0.40 |
| 원화대출 계   | 0.51  | 0.36 | 0.42  | 0.48 | 0.42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 3월 은행 대출연체율 0.42%... 하락세로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효과  
전월 말 대비 0.06%p 하락

지난 3월 은행의 대출연체율이 석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2%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2조1000억원으로 신규연체 발생액 1조2000억원을 웃돌면서 연체채권 잔액이 줄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0.56%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45%로 전월 수준

을 유지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0.10%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8%,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9%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중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효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작년 은행 관계형금융 6조... 41% 증가

전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의 6배 수준

지난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금융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잔액은 5조9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8% 증가했다. 전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7.4%)의 6배 수준이다. 장기대출(5조8818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분투자(392억원)는 소폭 감소했다.

관계형금융이란 은행과 기업의 장기신

뢰 관계를 통해 장기대출이나 지분투자,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1월에 도입됐다.

전체 중소기업대출 655조4000억원 대비 관계형금융 비중은 0.90%다. 지역밀착형 영업전략이 반영돼 지방은행의 관계형금융 비중이 2.01%로 시중은행(0.96%)의 2배를 웃돌았다.

중소기업업장에서 보면 관계형금융은 3년 이상 장기상품으로 안정적인 장기자금이 될 수 있다. 3년이상 5년미만이 76.9%, 5년이상 10년미만이 14.7%, 10년

이상이 8.4%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3년 미만 대출이 90%가 넘는다.

대출금리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관계형금융의 평균 대출금리는 3.58%로 전체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 3.68%보다 낮다.

은행업에서도 일시적인 거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관계형금융 연체율은 0.60%로 전체 중소기업대출(0.48%)과 비교하면 다소 높지만 비계량정보를 활용해 대출을 취급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안상미 기자

### 장외파생상품 거래 1경4000조... 10% ↑

수출경기 회복에 환헤지 수요 증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0개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총 거래규

모(명목금액 기준)는 1경3962조원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출경기 회복에 따른 환율하락 등으로 환헤지수요가 증가해 통화선도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7947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9.8% 증가했다. 금리변동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이자율스왑 잔액이 주로 늘었다. 기초자산별 거래규모는 통화가 1경1142조원으로 79.8%를 차지했고, 이자율(18.6%)과 주식(1.3%), 신용(0.2%) 등의 순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이자율이 62.7%를 차지했고, 통화(35.4%), 신용(0.9%) 및 주식(0.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 남북물류망 연계, '반도의 한계' 넘어 대륙경제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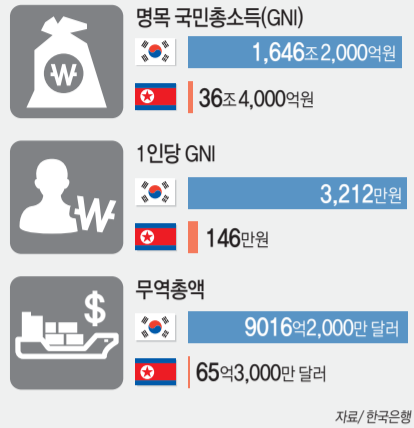
## 한반도 봄바람

### 〈上〉 정상회담과 韓경제

코레일, 남북대륙사업처 신설  
통일 위해 경제적 격차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두 정상 이 이번 회담에서 향후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면서 미 보호 무역주의 등 제동이 걸린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건스탠리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은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한국 증시가 최고 8% 상승할 것이라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지난 2016년 기준 남북 주요 경제지표



철도와 도로를 연결, 현대화해 실질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관광 교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철도·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경제성이 배가된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남북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를 위한 기반 작업으로 기대된다. 북한 경제가 오랫동안 정체되어온 탓에 당장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실질적인 통일 이후를 살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녹아든 결과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제 남북한 간 국민총소득(GNI)은 우리가 북한의 45배, 무역총액은 138배에 달한다.

지난 2016년 기준 남한의 명목 GNI는 1646조2000억원. 반면 북한은 우리의 45분의 1 수준인 36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0년만 해도 GNI는 12배 차이에 그쳤으나 2001년 33.9배, 2015년 45.5배로 확대됐다. 1인당 GNI를 살펴보면 남한은 지난 2001년 1443만원에서 2016년 3212만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북한은 89만원에서 146만원으로 늘어났을 뿐으로 그 격차는 16.3배에서 22배로 더욱 커졌다.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핵개발로 최근까지 각종 국제사회 제재에 묶여 있던 북한은 우리와 무역격차도 상당하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총액은 남한이 901.6억2000만 달러, 북한이 65억3000만 달러



로 138.1배나 차이난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가 지속될

경우 향후 자유왕래가 허용됐을 때 북한에서 일시 700만명 가량이 남하(南下)할 수 있다는 연구조사가 있다"며 "북한 인구의 3분의 1이 내려온다는 말인데 이는 양쪽 모두에 재앙으로, 통일 전 남북 간 소득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많은 지원과 투자는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성공적 남북 경협 위한 '디딤돌 경제'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남북 간 경제적 차이를 완화하고 교류 강화 이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완충지대, 즉 '디딤돌 경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사례를 살핀 결과 남한의 경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책대학원 교수는 "예컨대 경기도가 집중하는 산업을 북한의 특정 지자체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분단 국가였던 독일 역시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 간 지자체 교류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완화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북한연구소가 발간한 '독일 통일 과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르면 과거 동·서독의 대표적 항구 도시인 뉘른베르크와 비스마르크 등은 통일 전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 단위의 교류를 통해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완을 이룸으로써 남북 경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코레일은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전담할 남북대륙사업처를 신설했다. 남북 정상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기로 합의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올 상반기 내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장 포화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동남아로 눈을 돌리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등장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남북 경협이 추진돼 물류망이 연결되면 우리 경제 영토가 대륙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新남북경협, 경제성장의 기회로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 내·외부인사 경쟁구도... 靑 의중이 변수

### 》 1면 '포스코 차기 회장 3파전'서 계속

결국 승자는 제철소 운영노하우를 갖춘 정 회장이었다.

권오준 회장 역시 엔지니어 출신이다.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역대 회장은 황경로 전 회장(1992~1993년)이 유일하다.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회장을 맡은 정명식·유상부·이구택-정준양 회장 모두 엔지니어 출신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 전 부회장은 박태준 명예회장이 엑스모빌에서 직접 영입했던 인사로 박태준계 인사들 사이에서 차기 포스코 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 개발과 에너지 사업 등 신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식 전 사장은 장하성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준식 전 사장은 광주제일고 출신으로 장하성 실장과는 초

등학교·중학교 동기동창이면서 권 회장에 밀려 포스코를 떠났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다. 또 이낙연 총리와 광주제일고 동문이다.

장하성 실장이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이구택 전 회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포스코 지배구조 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이다. 때문에 이구택 라인으로도 분류된다. 장하성 실장의 강력 추천이 있을 수 있어 차기회장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많다. 현재 정치권에서 포스코에서 은퇴한 몇몇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포스코 차기 회장을 겨냥해 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수의 증가는 중국의 철강 가동률 제한 정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생산량을 늘리면 곧바로 추격당할 위험이 크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회장을 제대로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준 기자 ysw@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

다양한 여행할인 혜택과 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여행주간! 지금 바로 **여행주간**을 검색해보세요

4.28~5.13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날

다양한 여행할인 혜택과 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여행주간! 지금 바로 **여행주간**을 검색해보세요

travelweek.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中 선전으로 간 JY, “BYD 방문, 전기차 사업 논의”



**두번째 출장... 주요 경영진 동행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한 경영 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중국 선전으로 출국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두 번째 해외 출장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난번 유럽 출장과 달리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동행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복귀 신호탄을 쏘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2일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중국 선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출장에는 김기남 대표를 비롯해 진교영 메모리 사업부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등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주요 경영진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동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출장에서는 BYD를 비롯한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행 역시 지난번 유럽·캐나다 출장 때와 마찬가지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영 행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선전을 첫 아시아 출장지로 정한 것도 이런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지금은 ‘중국 혁신의 메카’, ‘중국의 실리콘밸리’ 등으로 불린다.

선전에 있는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I

T 기업으로, 텐센트와 화웨이 같은 중국 최대 규모의 IT 기업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DJI도 선전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BYD는 전기차로 유명하며 직원 수만 22만명에 이른다. 자동차 사업과 함께 IT 용 부품, 배터리 등도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중국 전기차-배터리 업체인 BYD의 지분 2%를 약 50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자동차 전장·오디오 전문업체인 하만을 인수하는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출장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이번에는 경영진들과 함께 해외 현장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영복귀 행보로 해석했다.

하지만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재판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국내보다는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 이전에도 업무의 80% 이상이 글로벌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고 해외 출장도 잦았다”면서 “앞으로도 공식적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글로벌 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행보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 ‘최초 폴더블’ 타이틀의 주인공은 어디?

**주요 스마트폰 업체 관련 특허 출원  
삼성전자, 최초보다 완성도에 집중**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이 정제된 스마트폰 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누가 먼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일찌감치 폴더블 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며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특허청(USPTO)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폴더블 폰을 개발 중이다. 애플이 개발 중인 폴더블 폰은 평상시에는 5.5인치 제품의 모습에서 펼치면 9.7인치 아이패드와 전환되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플렉서블 디스

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LG전자도 지난해 7월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에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갖춘 스마트폰’이란 이름의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며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중싱통신(ZTE)은 지난 2월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엑스엠’이라는 이름의 폴더블 폰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ZTE가 공개한 제품은 마치 두 개의 스마트폰을 옆으로 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 폴더블 폰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화웨이는 이미 지난해 9월 WIPO에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올해 11월 출시를 목표로 세계 최초라는 명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보다는 제품의

완성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이경태 무선기획팀 상무는 지난 26일 열린 1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폴더블 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몇 년간 연구개발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로 여러 업체와 협업을 진행중”이라며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단순히 세계최초에 집중하기보다는 고객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품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는 “부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안정화해야 하고 새로운 활용사례가 완료되면 공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단 폴더블 폰이 출시되면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폴더블 폰을 미래의 먹거리로 삼아 치열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고, 출시된다면



해외 디자이너 테크컨피그레이션(Techconfigurations)이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윙(Galaxy Wing)’의 컨셉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테크컨피그레이션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은 2019년 70만대에서 2021년 3040만대, 2022년 5010만대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출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일단 기존 스마트폰과 다른 외형 탓에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관심이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폴더블 폰의 가격, 화면이 반으로 접히는 부분의 자연스러운, 화면의 두께 문제 등의 부분에서 어느 업체가 소비자를 만족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컨테이너선에 세계 첫 ‘공기유통시스템’

**삼성중공업**

**연료 효율 4% 가량 높여 절감 효과**

삼성중공업이 2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공기유통시스템’을 적용하며 다시 한번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

삼성중공업은 글로벌선사인 스위스 MSC로부터 지난해 수주한 2만3000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연료 효율을 약 4% 가량 높일 수 있는 ‘삼성 공기유통시스템(SAVER Air)’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기유통시스템은 선체 바닥 면에 공기를 분사해 선체 표면과 바닷물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선박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연비를 향상시키는 에너지 절감장치(ESD)의 일종이다. 지난 2010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저속선박인 블록 운반선에 처음 적용한 뒤 연안여객선, 소형 석유화학제품운반(PC)선 일부에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초대형 고속 컨테이너선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공기유통시스템 적용을 통해 컨테이너선 건조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지난해 홍콩 OOCL사에 인도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21,413TEU)

삼성중공업 측은 내다봤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MSC가 발주한 선박에 적용할 삼성 공기유통시스템은 추가적 구조 보강 없이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파도나 조류와 같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공기층을 형성, 마찰저항 저감 효과를 지속적용 유지시킬 수 있다.

이동원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 센터장은 “지난해 수주한 2만3000TEU 컨테이너선 6척 중 1척에 (삼성 공기유통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5척은 추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기로 합의해 순차적 적용이 예상된다”며 “이 기술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연료절감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성문 기자 ysw@

## ‘갤럭시A6·A6+’ 글로벌시장 순차 공개

**삼성전자,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탑재  
‘돌비 애트모스’로 색다른 경험 제공**

삼성전자가 ‘갤럭시A6’와 ‘갤럭시A6 플러스(+)’를 공개하고, 5월 초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각각 5.6형, 6.0형의 갤럭시A6와 A6+는 18.5대9 화면 비율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 몰입감은 극대화하고 베젤은 최소화했으며, 한 손으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그림감을 제공한다. 특히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면 3차원 입체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시원한 대화면과 함께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A6와 A6+는 F1.9 렌즈에 각각 1600만·24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탑재하고, 디스플레이 빛을 광원으로 사용하며 3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셀피 플래시’를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셀피 촬영이 가능하다.

갤럭시A6+는 후면에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 인물 사진 촬영의 재미를 극대화시켰다.



갤럭시A6. /삼성전자

사용자는 직접 보면서 배경을 부드럽고 흐릿하게 처리하는 보케 효과를 조절할 수 있으며 빛 망울의 모양도 하트, 별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 가능하다.

‘얼굴 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텍스트(번역 및 환율), 음식, 메이크업 등의 모드를 선택한 후 피사체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빅스비’, 동시에 자주 사용하는 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앱 페어’, 데이터·이미지를 백업할 수 있는 ‘삼성 클라우드’를 제공한다.

갤럭시A6와 A6+는 블루·블랙·라벤더·골드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시되는 모델과 색상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구서윤 기자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초소형 전기차 도입**

SK브로드밴드는 2일 구성원의 안전과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발맞춰 설치 및 AS 전문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에 업계 최초로 초소형 전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업무형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차량밀집지역과 좁은 골목길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총 4대의 전기를 도입해 동대문홈고객센터 등 주택밀집지역과 충전 인프라가 마련된 센터 네 곳에 우선 지급한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 홈앤서비스에서 오토바이로 업무를 수행 중인 서비스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11대를 추가 도입해 기존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현장 효율성 등을 분석해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순건 홈앤서비스 대표는 “이번 전기차 도입을 통해 서비스 매니저들의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6000억원 자사주 소각

年 1회 분기배당

주주권의 강화 전담조직

# 모비스 '주주친화 3종 카드'로 선진 지배구조 그린다

## 현대모비스 주주친화정책 발표

15년 만에 첫 자사주 전량 소각  
3년간 추가로 1875억 매입·소각  
2025년 영업이익률 10% 제시

현대모비스가 실질적인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자사주 소각과 분기배당 실시, 중장기 손익 목표 수정 등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세가지 방안이 포함됐다. 또 투명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강화 요구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로 이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방침이다.

### ◆15년만에 6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현대모비스는 2일 개최한 임의이사회에서 현재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내년 중에 소각하고, 내년부터 3년간 1875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추가로 매입해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장부가액 변동이나 주가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204만주는 분할합병 후 분할 비율에 따라 161만주로 변경되며, 현재 주가(4월30일 기준 24만8000원)로 환산



하면 약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3년간 추가로 매입해 소각하기로 한 1875억원을 더하면 약 6000억원 규모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주가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물량도 현재 보유 중인 보통주 161만주(분할 전 204만주)에, 추가로 매입해 소각할 물량 76만주를 합산하면 총 237만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 후 발행주식 총수의 3.1% 정도에 해당되며, 주당순이익(EPS)과 주당배당금(DPS)도 각각 3.1%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보유 중인 204만주의 자사주 외에 1875억원 상당의 자사주에 대한 매입과 소각 절차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625억원씩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가 회사 보유의 보통주를 소각한 것은 지난 2003년 85만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2014년에는 2만 1484주의 우선주를 소각한 바 있다.

### ◆내년부터 연간 배당금액 3분의1은 분기배당

현대모비스는 주주들의 현금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매년 분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기준으로 연 1회 분기배당도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간 배당금액 중 3분의 1 정도를 미리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2019년부터 매년 분기 기준으로 정기적인 분기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배당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월 앞으로 잉여현금흐름의 20~40% 수준의 배당정책을 기준으로 주주 환원을 추진하고, 주요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현저한 수준의 배당 감소 또는 증가 시에는 그 사유를 주주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 내 주주권의 보호 기

구인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는 신규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를 국내외 일반주주들로부터 공모해 추천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사외이사 선임 시 전문성과 경험, 국적 등을 고려함으로써 다양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율주행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한양대 선우명호 교수 등을 오는 29일 예정된 주총에서 신규 선임키로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공정거래, 경영전략, 재무 분야는 물론 미래기술 연구 개발 분야의 전문가에 이르는 사외이사 풀을 갖추게 된다.

### ◆중장기 손익 목표 제시...영업이익률 2025년 10%

이날 현대모비스는 기존에 발표한 중장기 비전에 중장기 손익 목표를 추가해 수정 공식하기도 했다. 핵심부품사업과 미래사업부분의 영업이익률을 2025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단순히 외형 위주의 성장이 아닌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 핵심부품의 수주를 확대해 이 부분의 재료비율을 60% 이하로 달성한다는 세부적인 목표도 포함됐다. 현대모비스는 설계개선 능력과 생산효율극대화를 통해 이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핵심부품과 미래사업부분 매출 대비 10%에 달하는 R&D 투자를 미래 선행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올해 25조원으로 예상되는 분할합병 후 존속 모비스의 매출 규모를 매년 8%씩 성장시켜, 2022년에는 36조원, 2025년에는 44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담은 중장기 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장기 비전에는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부품과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신기술 전문사로 도약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질주본능·럭셔리 감성 담은 '슈퍼 젠틀카'



### 마세라티 '뉴 기블리'

기존 모델 비 출력 20마력 늘어  
공인 복합연비 7.4km/L 넘어서

100년 넘는 스포츠카 전통을 이어받은 마세라티의 '기블리'는 운전자의 눈과 귀, 촉각, 모든 것을 즐겁게 해준다. 전면 그릴에 박힌 삼지창 엠블럼 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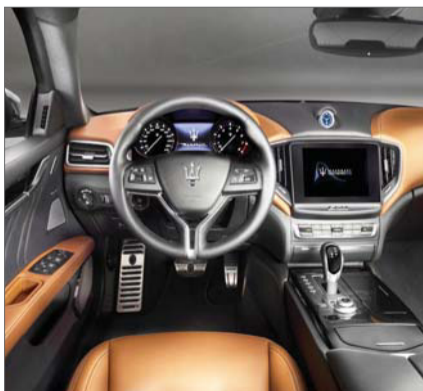
마세라티를 대중에 알린 기블리는 도로에서 주변 시선을 집중시키기 충분하다. 날렵하고 매끈한 외모와 강렬한 배기음은 심장을 뛰게 만든다. 덕분에 기블리는 마세라티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주력 모델로 자리잡았다. 마세라티의 글로벌 판매량은 2012년 6288대에 불과했으나 2013년 기블리가 출시된 이후 1만5400여대로 훌쩍 뛰었고, 2014년에는 3만6500대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4년 만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부분 변경)된 '뉴 기블리'의 시승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했다. 시승 차량은 뉴 기블리 S Q4 그란스포츠 트림이다.

외관은 유려한 곡선미를 가진 차체와 날카로운 눈매, 음악 타입의 세로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뽐내는 강렬한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실내는 고급감이 묻어났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바느질 한판에도 공을 들인 장인정신이 느껴진다.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갖는 차별화된 감성은 이같은 작은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블리는 외모 만큼이나 특별한 주행



마세라티 '뉴 기블리'.



마세라티 '뉴 기블리' 실내모습.

감성을 지닌 모델이다. 부드러운 세단의 주행상태에서 순식간의 스포츠카를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시동을 걸면 특유의 우렁찬 엔진 소리가 주변을 압도했다. 도로로 부드럽게 진입한 뒤 가속 페달을 살짝 누르자 '부릉'하는 엔진 배기음이 심장을 두드린다. 가속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바꾸자 180도 돌변했다. 엔진음이 더

욱 커지고 가속페달 반응도 더욱 빨라진다. 특히 낮은 서스펜션으로 도로를 움켜쥐고 있는 느낌을 주고,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달리기 실력을 뽐낸다.

기블리 S Q4는 3.0리터 V6 트윈 터보엔진을 탑재해 기존 모델보다 20마력의 출력과 3.1kg·m의 토크가 더해져 최대 430마력 및 59.2kg·m 토크를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기존 모델보다 0.1초 단축된 4.7초에 불과하다. 최고 속도는 286km/h이라고 한다.

뉴 기블리 주행 후 연비는 9.3km/L을 기록했다. 공인 복합연비 7.4km/L를 넘어서다. 폭발적인 가속력 등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내비게이션은 아쉬움이 남았다.

뉴 기블리는 3가지 엔진 라인업(기블리 디젤, 기블리, 기블리 S Q4)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모델에 따라 1억1240만~1억 4080만원이다. 시승한 차량은 최고급 가죽 인테리어 등 추가 옵션을 더해 1억 7000만원 수준이다. /양성문 기자

## 본인인증 앱 'T인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SK텔레콤 누적 인증건수 1.7억건  
제휴서비스만 3만1000여 개 달해

SK텔레콤은 본인확인 서비스인 'T인증'이 출시 21개월만에 가입자 1000만명, 월간 실사용자(MAU) 385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누적 인증건수는 1억 7000건을 넘어섰다.

T인증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보안 수준을 강화한 본인확인 서비스다.

SK텔레콤 고객이 T인증 앱에서 최초 1회에 한해 개인정보 등록을 하면, 이후부터 성명·전화번호·6자리 핀(PIN)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

다. 법인명의 단말도 최초 1회만 개인정보 등록을 마치면 개인명의 고객과 동일한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T인증을 통해 인증이 가능한 제휴 서비스는 3만1000개를 넘어섰다.

SK텔레콤은 T인증을 통해 누적된 고객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450만명에게 신용정보, 보험정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T인증 앱에서 고객 동의를 거쳐 'T신용지킴이', 'T스타', 'T건강지킴이'라는 형태의 부가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중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김나인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 BNK구원투수 김지완, 실적방어 빛났다… 순익 23% ↑

1분기 순익 2073억 올려  
올해부터 실적 상승 곡선  
부산·경남銀 순익 2018억

BNK금융그룹 '김지완 호(號)'가 순항 중이다. 지난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은 만큼 올해부터는 실적 상승 곡선을 타는 분위기다.

BNK금융은 2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18년 1분기 총 당기순이익(지배지분) 2073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683억원) 대비 23.2%(39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1%(267억원) 증가한 5820억원, 수수료 부문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17%(126억원) 증가한 558억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대출채권 매각의 증가로 기타비이자 부문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87억원 늘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핵심지원가성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예금 증가와 소매대출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의 결과로 분기중 NIM(순이자마진)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bp(1bp=0.01%포인트), 5bp 상승한 2.37%와 2.25%를 기록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1분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순이익은 각각 1353억원, 665억원이다. BNK캐피탈은 183억원, BNK투자증권 62억원, BNK저축은행 46억원 등

비은행 계열사들도 양호한 이익 성장세를 나타냈다.

BNK금융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90%,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52%로 동종 업계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판매관리비용률(CIR)도 지속적인 비용감축 노력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0.97% 개선된 41.94%를 기록하는 등 그룹의 수익구조가 큰 폭 개선됐다.



BNK금융그룹 전경.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안정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노력 등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4%포인트, 0.24%포인트 상승한 13.32%와 9.59%를 달성했다. 현재

추진 중인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시 향후 추가적인 비율 상승도 예상된다.

그룹 연결총자산은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해 전년 말 대비 1.71%(1조 8315억원) 증가한 109조 2487억원을 기록했다.

BNK금융지주 명형국 그룹전략재무총괄 부문장은 "지역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자산의 견조한 성장과 안정적인 비용관리로 양호한 분기 순이익을 시현하게 됐다"라며 "이러한 실적 흐름이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BNK금융그룹은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도 경영계획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에서 다섯번째), 김진양 북바이북 대표(왼쪽에서 네번째) 등 오픈식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이 축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KEB하나은행 '컬처뱅크 2호점' 광화문에 오픈

KEB하나은행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컬처뱅크 2호점'을 오피스 밀집 지역인 광화문에 '힐링서점' 컨셉으로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책과 힐링을 테마로 한 '컬처뱅크' 광화문역지점은 공예를 테마로 작년 12월 오픈한 방래서래지점에 이은 KEB하나은행 컬처뱅크 프로젝트의 두 번째 결과물로서 '책맥(책과 맥주)'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독립 서점계의 실력과 '북바이북'과의 협업을 통해 은행과 서점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다.

'컬처뱅크' 광화문역지점은 직장인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주변 직장인들이 은행 영업시간 이후와 주말에 언제든지 방문해 한 잔의 맥주와 책으로 챗바퀴 갈

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제공한다.

또한 대형서점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저자와 독자와의 소규모 만남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연중 활발하게 이뤄지는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광화문 지역의 문화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오픈식에는 책과 힐링을 테마로 한 컬처뱅크의 특성을 살려 주요 내빈들의 방문 축하 메시지를 책자 형태로 만들어 'KEB하나은행 컬처뱅크 북'으로 지점에 비치하는 등 기존 은행의 오픈식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은 "컬처뱅크는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mh0

## NH농협은행

### e사장님 대출 신규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다음달 29일까지 NH e사장님대출 가입고객을 위해 '대출상품 가입하GO! 주유쿠폰 받GO!'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은행에서 지난해 9월 출시한 비대면 개인사업자대출인 'NH e사장님 보증대출'을 이벤트 기간 내에 500만 원 이상 가입(대출금 수취)한 고객이 대

상이다. 상품서비스 안내에 동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GS칼텍스 모바일 주유쿠폰(3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당첨자는 7월 첫째 주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NH e사장님대출'은 사업기간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농협은행에 가맹점계좌를 보유하고 신용카드 대출대금이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의 경우 1년, 분할상환의 경우 거치기간 없이 5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 개인신용대출만 취급

### P2P 금융의 강자

#### ⑤ 렌딧

다수채권 투자 건수 630만건  
연체율 1.24%·부실률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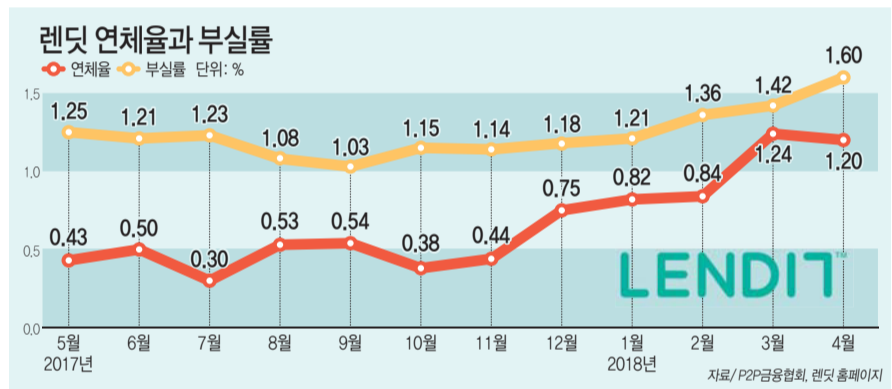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투명한 정보제공, 이제는 투자자가 효율적으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년째 개인신용 대출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 '렌딧'은 소신 있는 P2P 경영으로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곳이다.

시중은행은 금리가 낮지만 대출받기가 어렵고,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대신 대출은 쉬운 국내 금융시장에 의문을 갖고 P2P금융업에 뛰어든 렌딧의 김성준 대표.

그는 인터뷰 시작에 앞서 "국내 중금리 대출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아 고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부터 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P2P금융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의 경영소신은 대출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른 P2P기업들과 달리 한결같이 '개인신용 대출'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 그는 "한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며 "아직까지 다른 분야의 투자 상품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신용 대출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렌딧의 누적투자액은 4월 30일 기준 약 1200억원으로 지난해(약 380억원)보다 300% 성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단순한 성장보다 '성장을 통한 데이터의 정교화'를 렌딧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대출건수가 많다보니 다른 기업보다 신용평가 표본이 많아져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렌딧의 심사평가모델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 대비 대출자가 (다른 P2P기업에 비해)상대적으로 많다보니 데이터가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렌딧의 다수채권에 투자된 건수는 630만건으로 P2P금융협회 전체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다.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1.24%, 1.42%다. 3월 기준 P2P금융협회에서 공시한 평균 연체율 2.21%, 부실률 2.62%보다 밑도는 수치다.

김 대표는 "대출자의 단순 신용등급이 아니라 금융습관 등을 통해 신용평가를 정교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체율과 부실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3월 30일까지 운영하던 '보험드 서비스'에 이어 5월 중에 또다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6일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그는 "협회사와 산업의 본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에 공감하기 어려워 협회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의 P2P금융가이드와 규제를 철저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렌딧은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하더라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소속은 유지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순익 800억 목표... 복합금융기업으로"

취임 100일 김옥진 애쿠온캐피탈 회장

"올해 순익 803억원 목표, 복합금융기업 만들겠다."

김옥진 애쿠온캐피탈 회장 겸 애쿠온저축은행 이사회 의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쿠온의 비전과 사업전략,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김옥진 회장은 "지난 100일도 숨가쁘게 달려 왔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하겠다"며 "캐피탈과 저축은행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복합금융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애쿠온캐피탈은 지난 순이익 755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 약 4조 7000억원 규모다.

김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순이익 803억원, 총자산 5조 1000억원

을 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캐피탈의 입장에서 제공할 수 없던 부분을 저축은행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애쿠온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애쿠온 관계자는 "지역밀착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지점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비대면으로 지역상공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모바일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정상회담  
2018 INTER-KOREAN SUMMIT

# 남북정상회담의 감동 국민기업 KT의 5G로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완성한 2018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주관통신사 KT의 5G를 통해  
전 세계가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관문점·일산 프레스센터 간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남북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KT 5G 360° VR LIVE 중계

프레스센터  
KT 5G 체험관 운영

PEOPLE. TECHNOLOGY. **kt**

2018 남북정상회담 장소 [평화의 집]

# 정권따라 바뀌는 회계 이중잣대, 삼성 흡집내기 차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논란 확산

금감원, 5조 평가 '분식회계' 판단  
시가총액은 장기적 미래가치일 뿐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의사 밝혀

'이번엔 분식회계'. 삼성 흡집 내기의 칼 끝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향했다. 회계장부의 '예술(분식회계)'을 동원해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얼굴 화장'을 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 시민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 이후 4번째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데 5조원대 가치를 매긴 부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얻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손잡고 29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당시 안전회계법인인 엔브렐과 레미케이드 등 생산제품이 한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로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5조원대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것.

회계업계, 재계는 금감원의 '분식' 판단에 고개를 가우뚱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흡자전환은 분식이 아니라 회계상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2일 회계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오른쪽 첫번째)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병화 상무, 김동중 전무, 윤 상무. /연합뉴스

직스의 회계처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정상적일 수도 분식으로 내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 감사인들도 '적정' 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한 점도 이를 잘 말해 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2015년, 2016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회사는 의약품 개발할

때 10년이 넘는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보고 가치를 평가하는 게 당연한 것.

재계 한 관계자도 "바이오로직스 현재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상장사에 대한 가격 평가에서 현금흐름 등은 공정한 가치가 없을 때 회계적 평가일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현재의 시장가치(주가)"고 지적했다.

재무적 투자자가 된 것도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이 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이 회사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미래의 위험 등에 대해선 울타리를 친 대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지분을 투자한 미국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지분을 사들여 지분율을 절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다. 3500억원만 내면 5조원대(KPMG상정회계법인 2015년)기업의 반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이 콜옵션은 회계상 바이오로직스에 약 1조9335억원(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투자원금과 누적이자액의 합계)의 파생상품 부채로 기록돼 있다.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 4월 24일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콜옵션 행사 의사

를 직접 밝힌 바 있다.

상장 특혜 의혹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삼성은 나스닥 상장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국민적 열망이 컸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경수 전 이사장 등 한 국거래소는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혜의혹은 '한국판 테슬라를 키우겠다'는 기술 특례취지도 무시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한 테슬라는 2010년 적자(1억5000만 달러) 상태에서 나스닥(NASDAQ)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경우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총자산수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 기업도 어렵지 않게 상장하고 있다.

KB증권 이지수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흡자전환해 상장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2016년에 도입된 성장유망기업 요건(미래 성장성이 있는 적자기업도 상장 가능)에 적합해 상장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는 미실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해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볼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12월 내로(빠르면 6월 내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콜옵션 행사에 따라 회계 처리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딥체인지' 핵심은 체질변화

# SKT 물적분할로 현금흐름 개선·규제 완화 기대

## 2018 기업 지배구조 개편

### SK

SKT 투자사 전환·중간지주사로  
인적분할 근본적 약점 제거 가능

지난 2003년 4월 소비전자산운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SK.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그룹 체제를 강화한다. 오너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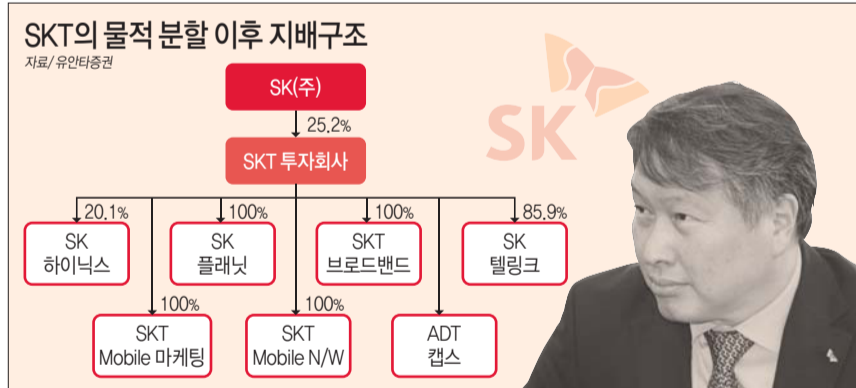
그러나 정제된 그룹의 현주소는 최태원 SK 회장에 늘 고민을 던졌다. 답은 '체질'을 바꾸는 것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존의 껍질을 깨는 파격적 수준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딥 체인지(Deep Change·근원적 변화)'의 핵심이다"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2015년 경영에 복귀한 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굵직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재편을 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그룹의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당장 한 이슈는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이다. 시장에서는 물적분할을 통해 투자회사로 변신하고, 중간지주사로 만들 것으로 본다.

### ◆최 회장, SKT 물적 분할까지?

사업구조의 틀은 상당부분 만들어졌다. IBK투자증권 김장원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은 통신, 반도체, IT, 화



학, 자동차, 시스템통합(SI) 등 많은 산업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SK는 필수 인프라인 반도체와 통신을 계열사가 지원하고, SI와 통신이 서비스와 상품을 설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며 4차 산업에 가장 많은 준비와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 성장 과정에서 인수합병(M&A) 등에 필요한 지배구조가 아쉽다.

SK그룹은 지난 2014년 SK C&C가 SK(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배구조에 변화를 줬다. 하지만 그룹의 IT사업 부문을 따로 떼놓고 보면 'SK(주)→SK텔레콤→SK하이닉스,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의 지분구조다. SK텔레콤이 사실상 중간지주사에 위치하고 SK하이닉스 등이 손자회사가 되는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자회사(중손회사)를 거느릴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M&A)

하려면 부분적인 지분 투자는 불가능하며 지분을 모조리 사들여야 하는 것.

SK가 SK텔레콤 중간지주회사 카드를 만지작 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정호 사장은 올해 초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8'에 참석해 삼성 전자 부스를 방문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올해 중간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 "거시 경제가(여건이) 좋은 점을 고려할 때(중간지주사 전환 여부를) 고려할 만한 여건은 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지주사 전환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사장은 이어 "실제로(관계사들이) 좀 더 한 가족 처럼 움직이도록 조직의 협업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SK가 물적분할 카드를 쓸 것으로 본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이 물적분할한다고 해

도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현재 SK텔레콤 주가가 기업분할 기대감으로 상승한 상태가 아니고 당초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인적분할보다 물적분할이 훨씬 더 소액주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인적분할의 근본적인 약점인 SK(주)와 중간지주회사와의 합병 가능성을 원천 제거할 수 있고, SK하이닉스와 SK플래닛의 가치를 드러내기가 원활해진다"며 "통신부문의 비상장사로 내려가고 중간지주사가 사업회사로 전환할 경우 정부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회사 배당금 유입분과 신규 사업 영위를 통한 현금흐름 창출을 바탕으로 중간지주회사가 신규 ICT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안타증권 최남근 연구원은 "물적 분할 시 중간 지주회사의 역할이 분명해지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탁월한 장점을 지닌다. 이동전화 사업부가 100% 비상장 회사로 전환, 규제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적 분할은 통신회사에서 투자 회사로의 변신을 의미한다. 이는 선인적 의미 이상으로 SK텔레콤에서 SK투모로우(가칭)로 바뀐다면 투자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바뀐다. 배당 보다는 M&A쪽이 현금 흐름이 투입될 것"고 분석했다.

### ◆지배구조 개편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중요

지배구조 개편은 플랫폼과 M&A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다.

SK텔레콤의 M&A는 대부분 실패했다. 그 배경에는 시너지에 집중하지 못한 탓이 하나이다. 하나 SK카드가 대표적이다. 중국 분자진단기기 벤처기업 티엔롱(TIANLONG) 등 해외 M&A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아이리버, 나노엔텍 등 소액투자 M&A에서도 쓴 잔을 마셨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 기업문화의 영향이 있다. 본질적으로 조직 구성원이 리스크 테이킹(위험감수)을 꺼린다. 이러한 현상은 M&A 외에 플랫폼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SK플래닛을 물적 분할(2011년)했지만, SK플래닛 분할 만으로는 플랫폼 사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실제 SK플래닛은 영업적자 규모를 좀처럼 줄이지 못했고, 지분투자에서도 손실 차손을 기록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물적분할도 과거의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가치·공유·협업. 최 회장이 올해 부쩍 강조하는 말들이다. 지배구조개편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2018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에 반영,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 文 특보와 선 그은 靑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

〈문정인〉

### 미군, 中·日 등 군사적 중재역할 북미회담 후보지에 ‘평양’ 없어

청와대는 2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어 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얘기해 나갈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7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29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주장이 나오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선호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지로 2~3곳을 거론할 때에는 평양이 후보지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

거론이 됐는데 평양이 아니었다는 것인 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북미회담 장소는 저희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제로 들

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평화협정 체결 때 중국의 참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 여부에 따라 (평화협정)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0.4선언 때에도 ‘3자 또는 4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고, 평화협정은 중국의 선택이라는 뜻인가’라는 말에는 “그렇다. 단 ‘종전협정’이 아닌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의미가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지금 기념일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제출과 여야대표 회동 추진 문제를 두고는 “둘 다 미정인 상태며, 두 사안의 선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며 “청와대의 뜻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을 협상 파트너로 얘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속칭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한 것에는 “무반응”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고, 아직 어디가 컨트롤 타워를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하는데 어디까지 발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항로 추가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4개분야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 “韓·터키 방산교류 통해 무역 획기적 확대”

### 문재인 “팔목성장 이끈 지도력 경의” 에르도안 “남북회담 성공개최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대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직후 한반도 평화의 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첫 번째 국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날씨 때문에 더 근사한 사열식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지금 한국에서 내리는 비는 풍년을 가져오는 비”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주 좋은 비와 함께 방문해 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형제 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터키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터키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오랜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터

키는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피를 흘렸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 국민은 터키를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팔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 두 정상 간 우의와 신뢰기반을 다진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이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터키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별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없애주는 굉장

히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본다”며 “이 화해의 분위기가 앞으로 영원히 지속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북한이 남한 외에도 주변국과 협상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터키에도 임무가 있다면 성심껏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양국의 무역 규모가 75억 달러 정도가 됐지만 아직 충분치 않은 규모다. 양국의 인구 잠재력을 봤을 때는 약소한 규모”라며 “이것이 몇 배, 몇십 배 증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관계를 더 증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방산 분야를 필두로 기술협약을 증진해간다면 무역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한국과 터키가 특별한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는 혈맹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계를 새로 조성해야 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역외탈세 부유층 39명 세무조사

### 국세청, 재산 은닉자 등 대상 탈루 세금 최대 수천억 달할 듯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 및 소득을 교묘히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부유층 납세자를 상대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사회 저명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이 상당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조사를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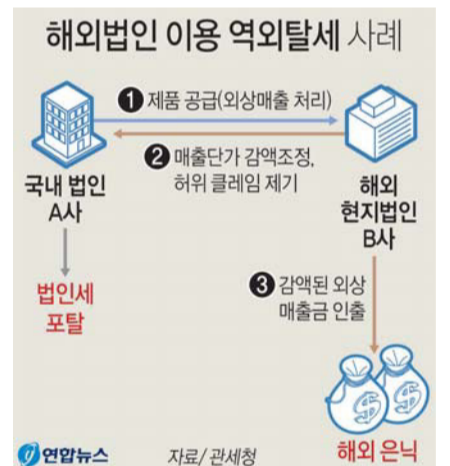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일부 유명 인사도 포함돼 있다”며 “개별 납세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정보, 수출입 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 고의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숨겨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자산가·대기업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의 1조3072억원 보다 1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한편, 국세청은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및 미신고자 정보 수집을 확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 등과 같은 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에는 역외탈세 대응 국제 공조체계 참여국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자료로 각국 정상과 정치인, 배우 등 유명인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돼 파장을 일으켰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장은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제2의 드루킹 막아라... 아웃링크 도입 법안 발의 쇄도

아웃링크 도입·기사선별 금지 등 인터넷뉴스사업자 영향력 줄이기 뉴스댓글 3개 제한 개편안도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제2의 드루킹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드러난 이후 현재까지 신문법과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총 1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의 주된 요구는 아웃링크 도입, 기사 선별·배열 금지,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등이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13개 중 4개의 법안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해야한다’는 아웃링크

〈지난달 1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이후 나온 법안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발의 일자 | 발의 의원(정당)          | 개정 법안                      | 주요 내용  |
|-------|--------------------|----------------------------|--|
| 5월1일  | 이언주의원 등 10인(바른미래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웃링크 제공, 기사 선별 및 배열 순위 조작 금지, 실검 순위 및 연관 검색어 제공 금지 |
| 4월30일 | 박대출의원 등 12인(자유한국당) |                            | 기사와 댓글에 대한 순위, 등급 부여 등으로 서열화하는 ‘랭킹뉴스’ 서비스 금지       |
| 4월23일 | 송석준의원 등 25인(자유한국당) |                            | 아웃링크 제공, 기사 배열 금지, 원칙 준수, 내용 수정 금지                 |
| 4월19일 | 이은재의원 등 14인(자유한국당) |                            |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지시·명령·조합 방법 공개 통한 공정성 제고             |
| 4월4일  | 박성중의원 등 11인(자유한국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웃링크 제공, 기사 편집·배열 금지, 내용 수정 금지                     |
| 5월1일  | 신용현의원 등 11인(바른미래당) |                            | 정보의 검색순위와 노출 빈도 등 차별적 대우 금지                        |
| 4월30일 | 신상진의원 등 10인(자유한국당) |                            | 아웃링크 제공, 댓글 금지                                     |
| 4월25일 | 이언주의원 등 10인(바른미래당) |                            | 모니터링·본인확인 조치 실시, 검색순위·조회수·추천수 조작 시 처벌              |
| 4월24일 | 오세정의원 등 14인(바른미래당) |                            | 여론 조작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나 조작 프로그램 사용 시 처벌               |
| 4월24일 | 송희경의원 등 10인(자유한국당) |                            | 매크로 등 여론조작 방치한 포털에 과태료 부과                          |
| 4월23일 | 김성태의원 등 13인(자유한국당) |                            | 댓글 조작 시 처벌,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처벌, 포털에 댓글조작 방지 의무 부과   |
| 4월23일 | 박완수의원 등 10인(자유한국당) |                            | 매크로 등 조작행위 금지, 포털에 조작 방지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
| 4월19일 | 박대출의원 등 16인(자유한국당) |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해 여론조작 등 부정한 행위 시 처벌                    |

크의 내용을 담았다.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링크를 통해 기사를 제공할 경우 댓글과 추천수 등을 통한 순위 매기기가 이뤄져 여론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뉴스 유통은 인링크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시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는 방

식이다. 이를 통해 댓글 달기와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표시, 기사에 대한 반응 표현 등이 이뤄진다. 아웃링크는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구글 등 해외 주요 포털은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웃링크는 인링크에 비해 댓글과 순위 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사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사 배열의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에서 “최근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배열의 순서를 임의로 재배열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

배열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 조합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하며 논란의 중심이 된 네이버도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5일,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3개로 제한하는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 앞에서도 댓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서훈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보험사 해외점포 적자... 손실실 2320만 불

(작년)

전년 4710만 달러보다 손실폭 줄어 보험영업 실적 개선·투자이익 증가

보험사들의 해외점포가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개 보험사의 해외점포 42개는 지난해 2320만 달러의 손실실을 시현했다.

보험영업 실적 개선과 투자이익 증가 등으로 2016년 4710만 달러 손실보다는 적자폭이 크게 줄었지만 적자가 지속됐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순이익을 냈지만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손실이 컸다.

업종별로는 보험업은 손실실 30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된 반면 투자업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만 달러 감소

한 7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점포 총자산은 88억86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22.2% 증가했다.

부채는 55억4100만 달러, 자본은 33억45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각각 27.4% 14.4% 늘었다. 보험업 점포의 영업확대로 책임준비금이 증가했고, 신규 점포 진출과 기존 점포의 유상증자 등도 있었다.

국가별 자산규모는 중국이 55억 3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3억38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가 국내 보험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점을 감안해 현지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험사 해외점포 손익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 16년(A)        | 17년(B) | 증감(B-A) | 증감률   |       |
|-----|---------------|--------|---------|-------|-------|
| 보험업 | 보험영업이익        | △239.0 | △226.2  | 12.8  | 적자축소  |
|     | 투자영업이익        | 189.5  | 237.2   | 47.7  | 25.2% |
|     | 영업외손익         | △20.9  | △35.6   | △14.7 | 적자심화  |
|     | 당기순이익(a)      | △77.9  | △30.7   | 47.2  | 적자축소  |
| 투자업 | 당기순이익(b)      | 7.6    | 7.5     | △0.1  | △1.3% |
|     | 전체 당기순이익(a+b) | △70.3  | △23.2   | 47.1  | 적자축소  |

## 남북 화해무드... 6월 증시 큰장 온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증시전망 비핵화·경제제재 해제가 큰 기회

남북 정상회담을 호재로 주식시장에도 장기 관점에서 훈풍이 예상된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달 중 큰 상승세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및 북한 경제제재 해제’가 이뤄지면 국내 증시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5월 주정 코스피밴드를 2430~2590포인트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이와 비슷한 2430~2580포인트를 제시했다. 5월에도 큰 폭의 하락은 물론 상승세도 없을 것이라 판단이다.

KB증권 이은택 투자전략팀장은 “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남북정상회담 자체보다는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남북경협 수혜주로 떠오른 건설, 철강금속 업종의 경우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지나치게 상승한 곳은 주가가 부담스런 수준이란 분석이 나온다.

NH투자증권 오태동 투자전략팀장은

〈북한의 정상회담 일정〉

/자료=KB증권

| 회담     | 날짜      | 논의제기  | 예상외제                             |
|--------|---------|---|----------------------------------|
| 남북정상회담 | 4월 27일  | 2월 10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제안하며 논의됨.                        |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
| 북미정상회담 | 5월말~6월초 | 3월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보안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힘                       |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한반도 종전선언           |
| 북중정상회담 | 6월 중    | 3월 25~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을 제안하며 논의됨 |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한반도 종전선언, 우방 관계 복원 |

“독일에서는 통일전 기대감으로 건설, 철강·금속, 공업 업종이 상승했으나 통일 후에는 기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이들 모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 시 실제 수혜로 이어지기 보다는 투자 비용이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남북경협 수혜주 가운데 과거 순이익 기준으로 주가수익비율(PER) 100배가 넘는 종목이 다수”라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 기업 이익실현이 장기화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6월에 예정된 북중 정상회담까지 마무리 된 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가 이뤄진다면 국내 증시에 기회요인이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택 투자전략팀장은 “대북 이슈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북·미,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5~6월 회담 이후를 염두에 두고 5월을 주식 매수 시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관계가 ‘휴전 체제’에서 ‘종전 체제’로 전환되고 나면 북한은 현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개방경제 노선을 따를 경우 각종 투자자 물리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태동 투자전략팀장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854달러로 방글라데시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음식료, 필수소비, 여행·레저 확대 등은 남북경협을 위한 수혜업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5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대전... 지방선거 전 내집마련 해볼까?

5월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룬다. 분양이 물리는 이유는 건설사들이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월드컵 축구 등으로 시기 조절이에 나선 때문이다.

2일 부동산114 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물량은 74곳, 6만2258가구 규모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6배 가량 많은 수치다. 이 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가구 수는 3만1601가구다. 대부분 수도권(서울

·경기·인천) 물량이다. 오는 6월에는 6·13지방 선거 및 러시아 월드컵으로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불확실성과 양극화로 인한 변수도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반기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이달 물리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청약시장을 주목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 군포시 금정동

보령제약부지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금정역’ 72~84㎡, 아파트 843가구와 23~84㎡, 오피스텔 639실 총 1482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초역세권 단지로 2층 데크로 역과 직접 연결된다. 또한 오는 2019년 1호선 금정역 급행열차 정차역으로 공사가 완료된다. 단지 외곽을 따라 안양천과 산본천이 흐르고 있고, 도

보권에 약 36만 3600여㎡ 규모의 호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도 누릴 수 있다.

GS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소곡지구 주택재개발하는 ‘안양씨엘포레자이’ 39~100㎡ 1394가구 중 7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 있으며 명화역에서 신도림역 20분대, 서울역 4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 단지가 위치한 안양시 만안구의 경우 안양시의 ‘제 2의 안양 부흥’이라는

비전과 목표 아래 대규모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1-1재정비촉진구역에서 ‘힐스테이트 신촌’ 37~119㎡ 1226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345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대우평지구에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59~149㎡ 2355가구를 분양한다. 주거 및 상업, 교통, 업무, 문화 등을 연계 개발하는 대규모 주거상업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넷마블 ‘準대기업’ 지정... “게임 新사업 날개 꺾는 것”

IT기업 중 네번째 준대기업 지정  
넷마블 “의무 성실히 이행할 것”  
게임 산업, 이슈·트렌드에 민감  
M&A·AI 등에 규제 우려 고개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지난 2월 열린 ‘제4회 NTP’에서 올해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넷마블

지난해 게임사 중 국내 최대 매출을 기록한 넷마블이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 중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은 넷마블이 네이버, 카카오, 넥슨에 이어 네 번째다. 게임사로는 넥슨에 이어 넷마블이 두 번째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넷마블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방준혁 넷마블이 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지난해 5월 코스피 상장 이후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 유입으로 같은해 말 연결 기준 자산총액이 5조3000억원으로 늘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검토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섰다. 넷마블 지분의 24.4%를 보유한 방준혁 의장은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넷마블 측은 “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공경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넷마블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총수로 지정된 방 의장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의 지분과 거래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이에 최근 넷마블이 지분 투자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식혁 대표의 지분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식혁 대표는 방 의장과 친인척 관계다. 넷마블은 지난 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총 2014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IT 업계에서는 넥슨과 넷마블에 이어 지난해 기준 3조5265억원의 자산 총액을 기록한 엔씨소프트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이은 게임사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게임 업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반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게임사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이 또 다른 규제의 옥쇄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전통적인 제조업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틀을 IT 기업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가야 하는 아이디어 산업인 게임의 경우 산업적인 특성을 고려해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넷마블은 최근 ‘넷마블게임즈’에서 ‘게임즈’를 떼고, 미래사업 준비를 위한 발걸음을 떴고 있다. 신규사업목적으로는 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사업, 블록체인 관련사업 및 연구개발업, 음원 등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을 추가해 사업적 도약을 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1·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모바일 게임에서 지적재산권(IP)과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히며, 투자 확대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이번 준대기업집단 지정으로 규제 문턱이 높아져 신규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게임 기업이 ‘재벌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게임업계의 경우 개인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아 가족경영 등이 위주인 대기업과는 운도차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 굴뚝산업과는 달리 게임 등 IT 기업의 경우 트렌드에 맞춰 게임 출시 등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는데 규제 이슈 등으로 빠른 의사결정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 인수합병(M&A) 등과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에 준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제일기획, 동유럽 광고대행사 인수

M&A 속도·글로벌 경쟁력 UP

CENTRADE | Cheil

제일기획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M&A(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일기획은 최근 동유럽 내 탑티어 광고대행사인 ‘센트레이드’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센트레이드는 지난 1993년 루마니아에 설립된 종합 광고대행사로 ATL, BTL, 디지털, 리테일 등 다양한 마케팅 솔루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동유럽을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센트레이드의 최대 강점은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동유럽 지역의 삼성닷컴 사이트 운영과 함께 P&G, 라이파이젠 은행(Raiffeisen bank) 등 다수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센트레이드의 전체 실적 중 디지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달하며, 최근 2년 간 디지털 비즈니스 매출총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총이익의 10%, 영업이익의 12%(세전 이익 17%) 성장이라는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제일기획으로서 이번 인수한 센트레이드가

유럽지역의 비즈니스 확대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해외 자회사들도 전년 대비 실적 개선 추세에 있어 전체 회사 실적의 75%를 차지하는 해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제일기획은 이번 센트레이드 인수 외에도 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이커머스 등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에이전시들의 인수를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 시장에서는 사업 다각화 및 확대를 위해, 서남아/중남미 등 성장세가 높은 신흥 시장에서는 시장 선점을 위해 지역별 차별화된 M&A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사업 기반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정근 제일기획 사장은 “제일기획은 전통 에이전시에서 디지털 전문 회사로 그 모습을 탈바꿈해 가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제일기획의 디지털 경쟁력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제일기획은 B2B 마케팅과 디지털미디어 분야 투자 차원에서 자회사 아이리스를 통해 캐나다의 B2B 마케팅 컨설팅 회사 PSL, 영국의 온라인 검색 광고회사 Atom42를 인수한 바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金감자·金쌀’... 소비자물가 1.6% ↑

상승률 6개월 만에 최대폭  
신선 채소가격 상승세 견인



최근 농산물값이 크게 뛰고 외식비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행진 품목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통계청이 공개한 소비자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1.3% 0.3%p 높아지며 지난해 10월 1.8%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를 기록한 후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 연속 2%를 밑돈 것은 2012년 11월~2016년 12월(4년 2개월) 이후 처음이다.

농산물이 8.9% 상승해 전체 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8월 16.2% 뛰이래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채소가 많이 올랐다.

신선 채소가격은 8.5% 상승해 지난해 8월 22.8%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감자 가격은 76.9%나 치솟았다. 2004년 3월 85.8%에 이어 약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쌀(30.2%), 고춧가루(43.1%), 무(41.9%), 호박(44.0%) 등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어류·조개·채소·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4.7% 뛰었다.

서비스물가는 1.6% 올랐고 이 가운데 외식비가 2.7% 올랐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비(6.8%), 가사도우미료(10.8%)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서비스물가 상승이 확인됐다.

석유류 가격은 3.8%, 수산물 가격은 5.0% 올랐고 축산물은 4.7% 하락했다.

채굴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이는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큰 약 140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물가상승률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1.4% 올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김영주(왼쪽 일곱 번째) 장관과 김준동(왼쪽 여덟 번째) 대한상의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주 “中企 노동시간 단축, 대기업이 선도해야”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시간단축 기업 간담회

납품단가 현실화 등 모범사례 당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납품단가 현실화, 보육 시설 지원 등의 사회적 책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기업인 간담회’ 모 두발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여

러분들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열린 은행 업종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행사에는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GS칼텍스, SK하이닉스, 이마트 등 규모 300인 이상 기업 12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쉽지 않은 여건에도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감사한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장에서 자리잡아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장관은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많은 중소기업체들과 사업 등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 단가 현실화 등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 경력 단절 해결을 위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필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맞벌이 노동자들이 쉽게 맡길 수 있도록 지하철 역 등 교통 거점에 어린이집 설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능력 있는 여성들이 차별 없이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요청도 더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 ‘옥중조사 거부’ 이명박 재판선 적극 방어할 듯

중앙지법,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다스 실소유 증거’ 쟁점 될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의 ‘옥중조사’를 완강히 거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선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1회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 변호인 등과 사건의 쟁점(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정리된 재판의 쟁점과 각종 증거들을 변호인들과 꼼꼼히 분석해 ‘본게임’인 공판기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 3월 22일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4월 9일에는 구속 전 준비해 둔 글을 통해 ‘정권의 허수아인 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구속 당시에는 전날 새벽 미리 작성한 편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매 기점마다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왔다.

이 전 대통령은 상황에 관계 없이 법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구속 전날 태도가 젊은 시절 감옥에 갔을 때와 같았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세”라며 “계산에 워낙 밝고 꼼꼼해서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로 재판에 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선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판가름할 증거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검찰은 그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폈었다. /이범종 기자 joker@

# 韓 의료비지출 증가율 6.8% OECD 회원국의 3배 달해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일본 2.6%·독일 2.3%·스위스 1%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 7.6%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차원의 국민건강보험 부담도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서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동시 주요국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일본(2.6%), 독일(2.3%), 스위스(1.0%), 캐나다(1.7%), 프랑스(1.1%)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2014~2015년에도 프랑스(-0.2%), 아일랜드(-0.3%), 일본(-0.8%), 그리스(-0.9%), 이스라엘(-1.2%) 등은 경상의료비가 감소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4.2%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증가세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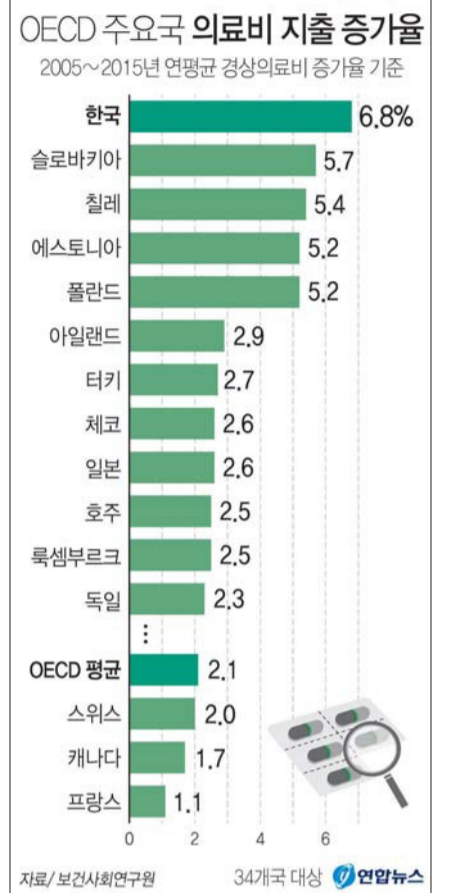
공행진 중이다. 2005~2016년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6%로, 영국(4.2%), 미국(3.0%), 캐나다(2.3%), 일본(3.4%)과 큰 차이가 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3년 6.9%(OECD 평균 8.9%)에서 2016년 7.7%(OECD 평균 9.0%)로 급증해 OECD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도 주요국들에 비해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로, OECD 평균(72.5%)보다 훨씬 낮다.

보고서는 “의료의 질과 접근도는 항상 추세이나 정부의 비용 통제력이 나빠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다가올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혁신과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을 체계화해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 340억 횡령혐의 이명박, 재산 추가동결될까

檢, 부패자산 몰수·회복 특례법 연구

검찰이 횡령 범죄 수익 몰수 방안을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3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여부가 관심을 끈다.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법이다. 2008년 3월 제정돼 같은해 4월 시행됐지만, 횡령 범죄 수익을 몰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죄는 뇌물죄와 달리 범죄 피해자가 따로 있어, 피해자가 범죄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문 총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난 2월 대검의 범죄수익환수과 설치에 문 총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개별 범죄수익 몰수보다는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 재산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돼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등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액 340억원이 몰수 대상이 될 경우, 추가 재산 동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범종 기자

## 원예작물 바이러스 감염 2분내 확인

# 농진청, 400억원 농가피해 예방했다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보급

무분별한 비료·약제 오남용 막아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7년부터 개발·보급한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활용으로 연간 약 400억 원의 농가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이러스병을 생리장해 등 유사증상으로 잘못 판단해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비료나 약제 오남용에 의한 농업생태계 오염을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농진청에 따르면 휴대용 진단키트를 이용하면 농가 현장에서 2분 이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수박, 오이, 멜론, 고추, 토마토 등 채소작물 총 10개 품목에 활용 가능하다.

농진청은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2007

년부터 현재까지 총 15종을 개발해 13만 4300여 점을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미세한 나노 크기의 금 입자(직경 40nm)에 바이러스 특이적 항체를 부착하고 바이러스와의 결합반응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채소작물의 잎을 따서 으갠 후 그 즙을 진단키트에 떨어뜨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막대종이처럼 생긴 스트립형 진단키트의 보존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임신진단키트와 같은 카세트형이 개발됐다. 또한 올해는 박과작물 바이러스 2종(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도 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150여 종의 바이러스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로 식물체에 얼룩 증상이나 마르거나 시들게 하는 등 이상증상을 일으켜 품질과 수량을 크게 떨어뜨린다. 더구나 기후변화와 국제 농산물 교역량이 증가되면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바이러스병의 치료 약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바이러스병을 초기에 진단해 건전한 식물체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책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명래 농진청 원예작물부장은 “앞으로 작물별로 여러 종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도 개발해 2020년부터 농업 현장에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해수부, 수산물 해외판로 개척 총력

지원사업 로드맵 마련·시행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수출 2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방안을 담은 ‘2018년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우리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9.5% 증가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율 불안, 비관세장벽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여건의 불확

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 ▲수산물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수출업계 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 등 3대 추진과제 및 이와 관련된 세부 사업 추진 내용 등이 담겨있다.

우선,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차세대 스타품목 발굴을 통한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식품 수출기공률 리스터 조성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세종=최신웅 기자

## 한국석유공, 부실투자 원인규명 착수

양수영 사장, 재발방지 대책마련 착수 내부감사·책임자 배상소송 등 추진

취임 한 달을 맞은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이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공동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과거 부실투자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초래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 또 대형 부실사업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과거 외부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투자로 부채비율이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석유공사 기업회생TF 출범식. 양수영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600%를 상회하며 향후 재무구조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석유공사는 이번에 양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회생 TF를 신설해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22개처, 112개 팀의 조직을 18개처 99개팀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회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자 3급 이상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의 10%를 반납하기로 결의했으며 양 사장은 임금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특히, 대표적인 부실투자로 지적을 받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업은 오일샌드 개발 사업인 블랙골드와 전통적인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 각각 다른 해법을 적용해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 전남 관광객 5000만시대 열렸다

지난해 5079만명 방문  
경기도 이어 '전국 2위' 기록  
시군별 '여수시' 전국 1위

전남 관광객 5000만명시대가 활짝 열렸다.

전남도는 지난해 1년동안 5079만명의 관광객이 전남 주요 관광지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2위 기록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전국 1위에 올라섰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7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위에서는 전남도가 경기도(7643만 명)에 이어 두 번째

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말 전남 관광객수인 4279만 명보다 8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전남도가 목표한 '2018 관광객 5천만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긴 것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가장 많은 1508만 명이였다.

그 뒤를 이어 순천시 907만 명, 담양군 279만 명, 목포시 259만 명, 구례군 249만 명이였다.

특히 여수시는 2013년 공식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1위였던 용인시를 제치고 최다 방문지로 나타나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섰다.

주요 관광지별로는 순천만 국가정원 612만 명,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357만 명, 여수 오동도 315만 명, 여수 돌산공원 266

만 명, 담양 죽녹원 139만 명 순이었다.

도는 전국 브랜드화에 성공한 '남도한바퀴' 활성화 등이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올해 신안 새천년대교가 개통되고 오는 2020년 흑산도 소형공항이 개항하면 섬 비경을 조망하는 스카이 투어(Sky Tour), 광역투어버스 '남도한바퀴' 섬 코스 확대 등 전남 섬만의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옥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올해 '전라도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전남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장애인·어르신 등 누구나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무장애 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 환경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전남 무안군 몽탄북초교 폐교에 문을 연 '밀리터리 테마파크'.

/연합뉴스

## 육·해·공군 무기가 '무안'에 모였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개장

전남 무안에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다.

무안군은 호남항공우주전시장 바로 옆 폐교인 몽탄북초등학교에 조성한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개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테마파크는 항공기 전시에만 국한된 콘텐츠에서 벗어나 육·해·공군 무기전시, 시뮬레이션 체험장, 실내스쿠터사격장, 적성물자전시실, 유격체험시설, 호남항공전시관, 세미나실 등 다양한 전시·교육·교육·체험 콘텐츠를 갖췄다.

1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옥만호 장

군이 무안군에 기부채납해 운영 중인 항공우주전시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항공기 전시에만 국한되는 등 미흡한 콘텐츠로 방문객 발길이 줄어들었다.

이에 군은 국비 등 28억원을 들여 폐교를 활용한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분단국가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기성세대에게는 옛 추억을, 전쟁을 모르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분단국가의 아픔과 한국 군대역사를 깨우치게 하는 교육과 체험 장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 “바다 주제로 한 장난감, 구경오세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바다와 장난감' 특별전 개최



오는 4일부터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바다와 장난감' 특별전이 열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전남 목포) 전경.

/연합뉴스

“바다를 주제로 한 장난감 구경 오세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전남 목포)가 오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바다와 장난감' 특별전을 연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전시다. 삶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놀이와 치유의 공간인 바다를 재조명하고 바다 관련 놀이거리를 통해 장난감 기원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기획했다.

전시는 총 4부로 과거의 흔적을 되짚어 보면서 인류의 놀이거리인 장난감의 기원에 대해 살피고 장난감의 변천을 통해 인류의 발전과 함께해온 장난감 역사를 조명했다.

제1부 '생명의 탄생지, 바다'에서는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산물을 통해 놀이거리의 기원에 대해 살핀다.

각종 조개류와 조개 가면, 흙으로 만든 인형 등을 통해 과거 놀이감에 대한 단서를 찾고 손놀림의 특성을 가진 각종 노리개와 장난구에서 장난감의 시초

를 유추해볼 수 있다.

제2부 '꿈과 상상력의 보물창고'에서는 감상과 수집의 대상이었던 완구(玩具)를 소개한다.

물고기 그림이 새겨진 분청사기나 물고기나 거북이 모양의 연적, 벼루, 문진 등의 바다와 관련한 문방구들을 통해 선조들의 바다에 대한 끊임없는 애착을 엿볼 수 있다.

제3부 '힐링의 바다'에서는 해변에서 휴가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 장난감을 소개한다.

해수욕에 도움을 주던 튜브, 오리발, 물안경 등의 물놀이 장난감과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게 도와준 다양한 손 장난감 등이 전시된다.

제4부 '모험과 탐험의 바다'에서는 거북선, 범선, 군함, 잠수함 등의 장난감을 소개해 실감 나는 해상전쟁의 세계로 초대한다. 꿈과 희망을 전해준 바다 모험, 탐험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가 더욱 풍성하게 돋보이도록 '조립아트'라는 현대예술의 한 장르인 블록 작품도 함께 전시하여 참신함과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고 한다.

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2일 "이번 전시가 바다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손때 묻은 장난감에서 최신 장난감까지 모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김남중 기자

## 장흥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 선정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지역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제도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후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가입대상 확대하게 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시상가침수, 상가지붕 훼손, 간판 파손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조 34%, 자부담 66%로 확정돼 기존 농어민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면 가능하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체이며,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된다.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은 총지원대상을 상가 586개소와 공장 126개소를 합한 712개소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가입 목표를 10%로 정하고 7천5백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장흥=이진우 기자

## 재정명 천년 기념 '보성군 군민헌장' 선포

전남 보성군은 10일 재정명(再定名) 천년을 기념해 새롭게 마련한 '보성군 군민헌장'을 선포한다고 1일 밝혔다.

보성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인 757년에 처음 보성군이란 이름을 얻었고 고려 성종 14년 995년에 폐주자사로 불렸다.

이후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다시 보성군이라 부르며 올해로 1000년이 됐다.

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보성군 군민헌장 조례'를 5월 1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일 '제44회 보성군민의 날' 선포한다.

군민헌장 서두에는 3경 3보향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보성군의 정체성'을 표현하였고, 새천년을 맞아 추진하는 '군

민헌장 개정의 당위성'을 기술했다.

본문은 천년의 역사문화와 청정자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실현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민헌장 시안은 이 지역 출신 작가이며 최초로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3년간 연재되어 최근 출간된 대하역사소설 '이순신의 7년' 등 집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가 작성했다.

임정주 기획예산실장은 "새로운 군민헌장에 담겨진 의미를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새겨 상생과 소통으로 군민이 행복한 보성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8@

## 보성군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사업 잔결음

보성군은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사업' 추진을 위한 잔결음을 이어가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관내 패류 양식어장은 밀집된 어장으로 침적과 퇴적에 의해 환경 악화와 갯벌양식장의 여건변화 등으로 보성군 패류 생산량이 2005년 8830톤에서 2016년 1660톤으로 81%나 급감하고 있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업권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마쳤다.

설문 결과, 어업권자 다수가 바다환경 개선을 통해 어장 생산성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며 어장 재배치사업에 찬성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지난 3월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 해왔으며, 이달에 재차 전남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사업이 반영되면 향후 10년간 총 4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밀집된 양식



어장이 경제정리식으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어장 재배치는 육지와 인접한 어촌계 마을어업권부터 실시하고, 최대한 개별 어업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업권자들이 패류양식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별, 지구별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패류 양식어장 재배치를 통해 어장환경 개선 및 패류 생산성 증대를 꾀하여 어업면허의 기본목적인 계획생산, 품질제고 등 어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 E-ALTON ECONOVA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 CJ 제일제당 조미료 원료 '핵산' 8년 연속 1위 글로벌 '그린바이오' 넘버원 속도

CJ제일제당이 세계 최대 규모 핵산 시장인 중국을 제패하고 글로벌 No.1 그린바이오 기업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연간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핵산 시장의 약 2/3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1위 공급자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도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생산량 기준)로 명실공히 1위에 올라있다.

CJ제일제당은 중국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간 핵산 전체 판매량이 약 20% 가량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약 20% 가량 늘었다고 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1977년 처음으로 핵산을 생산·출시한 이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왔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총 세 곳의 글로벌 핵산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두 곳이 중국 랴오청(요성)과 셴양(심양)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핵산(核酸/Nucleotide)은 음식의 맛을 살려주고 감칠맛을 높여주는 조미소재로, 조미료, 간장, 소스류, 다양한 가공식품에서 감칠맛을 더해주는 핵심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에 속하는 다양한 품목중에서 라이신이 나 트립토판 같은 사료용 아미노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으나, 최근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효자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핵산 시장 1위에 오른 데에는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로 확보한 고도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기



CJ제일제당 바이오 중국유통법인 전경. /CJ제일제당

## 세계 최대 핵산시장 중국도 제패 판매량 급증·글로벌 점유율 60% 맞춤형 솔루션·품질 경쟁력 주효

반으로 품질과 원가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중국 핵산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의 핵산제품은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B2B)가 대부분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핵산 제품만을 제공하는 '제품 마케팅'에 주력하는 중국내 다른 핵산업체들과 달리, 현지 고객사가 원하는 핵산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 맞는 사용법, 레시피 등을 함께 제공하는 '기술 마케팅'을 통해 수요와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글로벌 핵산 시장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고객이 원하는 품질수준보다 한 발 더 나아가갈 수 있는 초격차 기술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핵산 사업이 CJ제일제당이 글로벌 No.1 바이오 기업이 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현지 식품산업이 대형화·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핵심원료인 핵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대형 식품업체들의 핵산 수요 증가로 과거 가격중심의 시장에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역량이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글로벌 핵산 최대 공급사인 CJ제일제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생산 기반 확대와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셀트리온 '렘시마' 美 시장 안착 1분기 매출 591억... 224%증가

## 1년 새 분기 매출 3.2배 늘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렘시마'가 올해 1분기 미국에서 5500만달러(한화 약 5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화이자사는 실적 발표를 통해 렘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의 미국 내 매출액이 5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고 밝혔다. 1년 새 분기 매출이 3.2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렘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는 안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다. 미국에서는 화이자가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부터 판매 중이다.

렘시마는 2016년 400만달러에 불과하던 매출은 지난해 1억1천800만달러까지 늘어났고, 올해는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실적을 내는 등



순항하고 있다.

화이자의 EH(Essential Health)부문 매출액은 50억7700만 달러(약 5조4500억원)로 전년 대비 5% 하락했지만, 렘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실적은 성장했다.

또한 렘시마가 미국에서 선전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존슨앤드존슨(J&J)은 레미케이드의 올해 1분기 미국 매출액이 9억1600만 달러(약 98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제넥신, 로슈와 면역항암제 공동개발

제넥신과 미국 관계사 네오이뮤네틱은 글로벌 제약기업 로슈와 병용투여 방식의 면역항암제를 공동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임상은 흑색종, 머켈세포암, 피부편평 세포암과 같은 고위험 진행성 피부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네오이뮤네틱과 미국 면역항암 네트워크인 ION(Immune Oncology Network)이 공동으로 이끄는 임상 제1b/2a상에서는 하이루킨-7과 로슈의 면역관문억제제인 테센트릭(Tecentriq)의 병용투여 효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유재희 기자

제넥신에 따르면 하이루킨-7은 면역세포 성장 및 활성화 물질 '인터루킨-7'(IL-7)을 기반으로 개발된 면역항암제로,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증식과 활성을 돕는다. 로슈의 티센트릭은 암세포의 면역반응 회피 신호를 억제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면역관문억제제다.

ION은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북미 유수의 암 센터 및 대학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서 첨단 면역항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유재희 기자

## '2018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휴온스-휴메딕스 선정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와 휴메딕스가 '2018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글로벌 선도기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KICOX 글로벌 선도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글로벌 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매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온스는 충북 제천바이오밸리 내에 위치한 cGMP급 최첨단 공장 설비와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전문의약품 생산하며 국내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평균 7% 이상의 R&D 투자를 통해 우수 의약품을 개발하고, 점안제, 국소마취제, 웰빙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등 다양한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보툴리눔 독소 '휴톡스'를 필두로 해외 수출 확대 및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며 얻은 가시적인 성과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휴메딕스는 지난해 제천바이오밸리 내에 cGMP급의 '휴메딕스 제 2공장'을 준공 하면서 바이알, 앰플, 프리필드 등 주사제 전 제형을 커버할 수 있는 최첨단 설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휴온스와 휴메딕스는 선정됨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맞춤형 기업성장 패키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유재희 기자

## "흔한 속병 위염, 방치했다간 병 키운다"

### 심기남 이대목동병원 교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며, 급하게 먹는 문화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은 소화기계통의 질환을 흔히 앓는 편이다. 국민 5명 중 1명이 소화계통 질환을 경험했는데, 이 중 가장 흔한 것이 위염이다.

위에 염증이 생긴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진단과 치료가 비교적 간단한 급성 위염은 헬리코박터균에 처음 감염되거나 그 외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감염됐을 때 생길 수 있다. 또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 알코올 복용, 심한 화상이나 외상, 수술 등의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급성 위염이 생기면 보통 복통, 소화불량, 구토, 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 위염은 급성 위염과 달리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지속해서 작용해 증상이 나타난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약물, 흡연, 반복적인 알코올 섭취,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담즙이 역류하는 경우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위염을 불러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심기남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사진)는 "위염이 만성화되면 증상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위장 점막에는 감각 신경이 없어서 심한 염증이 있어도 직접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



을 수도 있다"며 "소화불량, 복부의 불편함과 팽만감, 명치 부위 통증,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데 양상이 다양

해 환자 스스로 위염을 정의하기 쉽지 않으므로, 평소 위 건강에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염을 진단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별한 증상 없이 내시경 검사로 우연히 만성 위염을 발견한다면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환자가 특정 증상을 호소한다면, 증상에 대한 치료를 우선 시도한다. 증상이 없다고 무조건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 위염은 전체 암 발생률 1위를 기록하며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내시경 검사로 위염을 분류하고, 염증의 정도와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식습관 개선은 예방과 치료 모두에서 중요하다. 신선한 채소의 섭취를 늘리고,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도 방법이다. 만성 위염은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염의 원인균으로 널리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는 것은 환자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박인용 기자

## JW중외제약 의약품 R&D에 AI 활용나서

### 신테카바이오와 AI 신약개발 MOU

JW중외제약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 R&D 경쟁력을 강화한다.

JW중외제약은 신테카바이오와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JW중외제약은 신테카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



맵 플랫폼(PMAP)'의 약물 반응성 예측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한 재생의학 분야와 개발·판매 중인 의약품 적응증 확장 연구에도 신테카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재희 기자

## 동아제약 어린이감기약 '챔프 노즈 시럽' 출시

동아제약은 어린이 감기약 '챔프 노즈 시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챔프 노즈 시럽은 슈도 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등을 완화한다.

특히 챔프 노즈는 5ml씩 1회용 스틱 파우치 형태로 소량 포장돼 있어 복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다. 가령 나이가 만 5세이고 체중이 20kg인 아이라면 1회 복용 시 별도의 투약 도구(계량컵, 스푼) 없이 5ml 한 포를 먹으면 된다. /유재희 기자



또한 어린이 감기약 챔프 노즈는 색소와 보존제를 넣지 않았고, 의약품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 안전 포장을 적용했다. 보호자가 직접 가위 등을 이용해 개봉해야만 복용할 수 있다.

챔프 노즈는 만 2세부터 복용 가능하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재희 기자



# “가족과 함께해요”... 식품업계 ‘가정의 달’ 마케팅 열풍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선물 수요 증가  
한정 판매·할인 행사 등 이벤트 마련

식품업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있어 선물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한정판 제품, 할인 행사 등 이벤트를 선보이는 중이다. 일부 업체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제과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피터래빗 선물세트’와 ‘다이노코어 선물꾸러미’ 2종의 종합선물세트를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피터래빗 선물세트’에는 왓따 딸바, 뉴쫄쫄나 청포도, 청포도 캔디, 칸초, 씨리얼, 꼬깔콘, 치토스 등 견, 캔디, 비스킷, 스낵 총 8종의 다양한 종류의 과자가 들어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1만원이다. ‘다이노코어 선물꾸러미’는 꼬깔콘, 치토스 총 5종의 스낵 제품만을 넣어 스낵을 좋아하는 어린이를 위해 구성하였다. 권장소비자가격은 6000원이다.

파리바게뜨가 ‘감사와 사랑이 빛나는 5월’을 주제로 기획 제품 30종을 출시했다. 파리바게뜨는 ‘노래하는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피크닉’, ‘콩순이 공룡송이케이크’, ‘이집트에 간 트래블러 뽀로로’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샤이닝플라워케



지난해 ‘스위트홈 제22회 오투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에 참가한 가족들이 요리경연을 펼치고 있다. /오투기



2일 파리바게뜨 카페 대학로점에서 모델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SPC그룹

이크’, ‘감사가득 플라워케이크’, ‘감사의 핑크꽃송이’ 등 가정의 달을 상징하는 꽃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제품도 내놨다. 이외에도 ‘피치블라썸롤’, ‘제주하라봉&딸기요거트 케이크’ 등 다양한 과일을 활용한 롤케이크도 준비했다.

신세계푸드 외식브랜드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올반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고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를 동반하고 식사를 한 고객에게 스테들러 색연필을 선착순 2000개 증정한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아 6일부터 13일까지 가족 고객에게는 웰컴 드링크를, 부부의 날을 기념해 20일부터 24일까지 부부 또는 커플 고객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노보노에서는 6일까지 어린이 고객에게 솜사탕을 제공하고 어

린이날 당일에는 페이스 페인팅과 문구류 300세트 증정을 진행한다. 또 7일부터 22일까지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식사 금액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데블스도 어버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을 기념해 웰컴 드링크 제공, 아메리카노 1잔 무료 증정, 5만원 이상 구매시 샐러드 1개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리아는 신제품 빙수 2종 출시와 함께 다양한 할인 혜택 이벤트를 운영한다. 빙수는 푸짐한 양을 바탕으로 가성비 높은 제품이다. 팔짱과 인절미 떡, 후르츠믹스를 사용한 오리지널 팔빙수와 메론맛 큐브 아이스크림과 메론 시럽을 사용한 메론큐브 빙수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5월 한 달 간 비프바베큐, 새우, 클래식 치즈, 핫크리스피 버거 4종과 최근 출시한 베이컨통치즈스틱, 포테이토와 음

료로 구성된 세트의 정석 4종을 운영한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9월 선보인 60cm 피자 대형 인형의 인기에 이어, 50cm 포켓몬스터 캐릭터 잠만보와 이상해씨 캐릭터의 바디 필로우 대형 인형을 모든 세트 구매시 2만5000원에 판매한다.

KGC인삼공사는 ‘면역력 활짝 피워라’ 행사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 행사는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20여종의 선물세트(다보록) 및 ‘화애락’, ‘홍천옹’, ‘홍삼톤골드’, ‘홍삼달임액’ 등 주요 인기 제품에 대해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정관장 매장에서 진행하며, 정관장 멤버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보르미울리 드링크즈’를 증정하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멤버스 포인트를 추가 적립 해준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있

다. 오투기는 오는 12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스위트홈 제23회 오투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축제는 스위트홈 실현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선도하고자 1996년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3000여 가족, 약 1만20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예선을 거쳐 총 150가족이 참가하게 된다. 참가가족은 자유경연과 지정경연으로 요리경연에 참여하며, 외국인 가족도 함께해 국내 요리는 물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이색요리까지 접할 수 있다. 요리경연뿐만 아니라 오투기 제품 시식코너, 오투기가 후원하는 심장병 완치 어린이 요리교실, 어린이 놀이존,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린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인 오투기상 수상가족에게는 500만원 상당의 주방가전제품 교환권 등 총 12가족에게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풀무원의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을 통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김치와 김장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행사를 마련한다. 이 행사는 어린이 대상 입장료 무료, 김치 담그기 체험, 제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날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이마트, ‘스파’와 맞손... 中 수출 확대

상품공급 중심 업무협약 체결  
스파, 폭넓은 판로 확장성 장점

이마트가 글로벌 유통기업 스파와 함께 중국시장 수출을 확대한다. 이마트는 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글로벌 유통기업 ‘스파 인터내셔널’과 ‘이마트-Spar’ 상품공급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사간 수출 상품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갑수 이마트 사장과 Tobias Wasmuht 스파 인터내셔널 대표(CEO)가 참석한다. 특히 이마트는 이번 ‘스파’와의 협약을 통해 중국 오프라인 시장 재공략에 나선 방침이다.

‘스파’는 1932년 설립된 연 매출 32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현재 47개국에서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등 다양한 업태를 통해 1만 25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맺는 ‘스파 인터내셔널’은 중국을 비롯한 30여 개 국가에 파트너사를 두고 유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사업의 경우 ‘스파 인터내셔널’ 내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또한 스파가 세계 곳곳에 매장을 거느린 유수의 글로벌 유통기업인만큼 향후 폭넓은 판로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 역시 큰 이점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노브랜드, 피코크, 센텐스(화장품) 등 자체 상품을 비

롯해 우수 한국 상품을 ‘스파 차이나(Spar China)’의 400여개 매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식 일정에 맞춰 ‘스파 차이나’에서 총 24명의 대규모 바이어 방문단이 구매 협약을 위해 이마트를 방문한다.

이들은 직접 이마트의 매장, 물류센터 등 유통시설들을 둘러보고 상품공급 계약 및 상품 선정을 위해 이마트와 긴밀한 스킨십을 가질 예정이다.

심진보 이마트 트레이딩 팀장은 “이번 협약은 이마트가 추진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상품 수출 확대와 전문점 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스파’와의 긴밀한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유통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용 기자



홈플러스가 9일까지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가족 단위 고객들을 위해 과일, 간편식, 대용량 먹거리 상품 할인전을 펼친다. /홈플러스

## 홈플러스, 황금연휴 앞두고 먹거리 할인

신선·가공·제과 등 물가부담 낮춰  
홈플러스가 어린이날 황금연휴 기간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해 신선, 가공, 제과 음료 전 카테고리에 걸친 먹거리 상품 할인전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행사카드(신한·KB국민·삼성) 결제 시 ‘유명산지 수박’을 2000원씩 할인해 각 1만4900원(5~6kg), 1만5900원(6~7kg)에 선보인다. ‘국내산 방울토마토(2kg·목동점 제외)’는 9990원에 판매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스프리 점보 골드키위(뉴질랜드산)’ 10개 구매 시 9990원, ‘프리미엄 스위트오·감숙왕 바나나(필리핀산)’는 송이당 3990원에 마련했다.

온 가족이 함께 먹기 좋은 대용량 먹거리도 저렴하게 선보인다. ‘두 마리 후라이드 치킨(팩·원료육·국내산 10호·동김해점, 영도점, 밀양점 제외)’을 1만1980원에, 고시히카리쌀로 만든 ‘셰프 초밥’을 20개 7990원에 판매한다.

여행지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HMR(가정간편식) 상품도 마련해 ‘소곱창전골(1.2kg/팩/원산지 별도표기)’을 1만1900원에, ‘의정부식 부대찌개(750g·원산지 별도표기)’와 ‘시원하고 칼칼한 부대찌개(735g/원산지 별도표기)’를 각 4990원에 판매한다.

캠핑 또는 여행지에서 유용한 정육상품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1등급 이상 국내산 일품포크 삼겹살/목심(국내산)’과 ‘초이스 부چه살(미국산)’을 100g당 각 1590원에 마련했다.

이밖에도 홈플러스는 ▲제과/음료(20여종) 각 500원 균일가전 ▲여행지 필수먹거리인 커피라면, 양념장, 통조림 등 나들이 먹거리(100여 종) 각 1000원 균일가전도 마련해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것 단 방침이다. 여기에 3일부터 16일까지는 ▲아이스티(40여 종) 1+1 행사,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단 3일간은 ▲홈베이킹믹스(40여 종) 1+1 ▲잼/스프레드(30여 종) 1+1 특템잔스도 함께 마련해 주부들을 위한 알뜰쇼핑 기회도 제공한다.

/\*박민용 기자

## BBQ, 배달용 초소형 EV차 ‘트위지’ 도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치킨 업계 최초로 초소형 EV(전기자동차) 차량인 ‘트위지(Twizy)’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패밀리리타운점, 종로본점 등 BBQ 직영점에 우선 도입되어 실제로 배달에 이용되고 있으며, 5월 내 BBQ 패밀리(가맹점, 이하 패밀리)에 60대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총 1000대를 패밀리에 도입 시킬 예정이다.

트위지는 초소형 전기차로,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도심형 이동수단이자 운송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트렁크 공간이 최대 180L 까지 확장되며, 도어가 슈퍼카처럼 위로 올라

가는 시저빙으로 90도까지 열리는 등 근거리 소매물류 운송차량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무엇보다 트위지에는 차내 보호장치와 4점식 안전벨트 및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어 배달 사원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전기차가 자랑하는 저렴한 연료비(월 2~3만원)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며, 대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친환경적인 배달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BBQ는 기존 배달용 오토바이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BBQ-서울특별시-르노삼성자동차 삼자간 M



BBQ가 배달용 초소형EV(전기자동차) ‘트위지’를 도입한다. /제너시스BBQ

OU’를 체결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트위지를 도입했으나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종분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규제에 막혀 운영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 규제완화로 인해 도입이 가능해져 치킨을 실은 BBQ 트위지가 도로를 누빌 수 있게 됐다.

/\*박민용 기자

# 스타벅스, 청년창업 지원하는 '창업카페' 개시

## 5개 대학과 창업카페 시즌5 프로그램 진행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올해도 창업카페 프로그램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스타벅스커피는 다섯 번째 창업카페 시즌을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즌제로 다섯 번째 순서를 맞은 이번 창업카페 시즌5프로그램은 5개 대학(한양대·이화여대·건국대·광운대·인덕대)이 참여한다. 오는 7월 27일까지 스타벅스 용산역씨앗점과 한양대점, 공릉역점, 이대점, 광운대점, 자양사거리점에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총 29회의 강연 모임이 개최되어 예비 청년창업가 8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창업카페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스타트업 유명인사의 멘토링 강연을 개최해 대학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3년 동안 시즌제로 총 4회



지난달 30일 창업카페 발대식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창업 동아리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의 창업카페 프로그램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운영하며 서울과 대전, 대구 등 대학가 주변의 스타벅스 11개 매장에서 110회에 달하는 강의 모임을 주최했다. 이를 통해 1840명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해 선배 창업가의 세미나 강연을 들으면서 정보와 인적 교류

의 기회를 얻었다. 스타벅스는 향후 지역사회에서 청년 창업을 위한 교류의 확산과 아이디어 유입 창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창업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 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코스콤, 김치만들기 봉사 코스콤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저소득가정 300세대에 전달할 열무김치 만들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비오는 곳은 날씨에도 코스콤 임직원 13명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센터 텃밭에서 열무김치 300kg 담그기 및 양말선물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코스콤

## 에스오일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도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돕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서 S-OIL 선진영 본부장(왼쪽),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속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스오일

에스오일(S-OIL)은 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인 '해피 투게더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돕기 위한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교육·심리치료 활동을 전개하고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자녀가 머무는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에스오일이 전달한 후원금은 쉼터를 퇴소하는 이주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주여성들의 법률상담 및 사회복귀를 돕는 이주여성 출신 통·번역 전문 상담 활동가 후원을 돕는데 쓰인다. 에스오일은 늘어나는 피해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13년부터 민간 기업 최초로 후원을 시작했다. /구서훈 기자 yun2514@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8 한국 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15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신한은행

## 신한은행 KSQI 우수콜센터 15년 연속 선정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8 한국 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15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0개 산업군 250개 기업에 대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문 평가단이 전화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 상담지식관리시

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래 고객 중심의 상담 노하우를 관리해 표준화 되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은행권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디지털기소스크린 '유어스 매트라운지' 내 화상상담 ▲모바일 특상담 ▲챗봇 상담 '솔(SOL)메이트' ▲24시간 365일 상담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김민조의 운세** 5월 3일 (음 3월 18일) 민조 역학 학당(02-713-6207 www.kimminjo.co.kr)

|   |  |
|---|--|
| <p><b> 쥐 </b><br/>48년생 자식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60년생 배우자가 속을 썩이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 72년생 사소한 시비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84년생 질투심으로 인해 좋은 일을 놓치게 된다.</p>                     | <p><b> 말 </b><br/>54년생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이나 친지의 소식을 듣게 된다. 66년생 뱀사람으로 인한 근심이 있다. 78년생 귀인이 나타나서 힘든 일을 도와준다. 90년생 돈이 생기거나 인연을 만나게 된다.</p>                         |
| <p><b> 소 </b><br/>49년생 생각하지 않은 일로 책임질 일이 생긴다. 61년생 즐거움이 있는 곳에 시비가 생긴다. 73년생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고민하게 된다. 85년생 우연히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p>               | <p><b> 양 </b><br/>55년생 주변 사람과 하찮은 일로 마음 상하게 된다. 67년생 별일도 아닌데 공연히 우울하니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 79년생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 91년생 쓸데없이 내기하지 마라. 후회하게 된다.</p>         |
| <p><b> 호랑이 </b><br/>50년생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62년생 접촉사고가 나거나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 74년생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86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계약할 일이 있다.</p> | <p><b> 원숭이 </b><br/>56년생 계약할 일이 있다. 68년생 좋은 일이 있어 절대하게 된다. 80년생 재물을 벌 기회가 생기지만 지금은 아니다. 92년생 말로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p>                           |
| <p><b> 토끼 </b><br/>51년생 생각지도 않은 횡재수가 오하려 화근이 된다. 63년생 즐거운 일이 있고 식욕이 증가한다. 75년생 친구와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87년생 머리가 맑지 못하고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p>       | <p><b> 닭 </b><br/>57년생 머리가 아프고 개운하지 않다. 폭 쉬는 것이 좋다. 69년생 주변에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말을 듣게 된다. 81년생 여자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 조심하라. 93년생 그동안 힘들었던 일이 해결되어 즐거분하게 된다.</p>     |
| <p><b> 돼지 </b><br/>52년생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 64년생 친구와 돈거래를 하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 76년생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변동할 일이 있다. 88년생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감투를 쓰게 된다.</p>    | <p><b> 개 </b><br/>58년생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 다투는 일이 있다. 70년생 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거나 부부 사이에 섭섭한 일이 있다. 82년생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상할 수가 있으니 계단을 잘 살펴라. 94년생 사소한 다툼이 크게 되니 조심하라.</p> |
| <p><b> 뱀 </b><br/>53년생 식사 대접받을 일이 있다. 65년생 소원했던 사람과 다시 화합하게 된다. 77년생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되거나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89년생 몸을 다치거나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말 조심하라.</p>     | <p><b> 돼지 </b><br/>59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나중에 편해진다. 71년생 투자할 일이 있거나 돈 쓸 일이 있다. 83년생 과식할 일이 있다.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95년생 주변 사람과 의기 투합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p>          |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1 | 2 |   |   | 7 | 8 |   |   |   |
|   |   | 3 |   | 6 |   |   | 1 |   |
| 4 | 5 |   |   | 1 | 9 | 7 |   |   |
|   |   | 7 | 2 |   | 3 | 5 |   |   |
| 8 |   |   | 9 |   |   |   |   |   |
|   | 4 | 9 | 5 |   |   | 7 | 8 |   |
|   |   |   |   |   | 9 |   |   | 2 |
|   |   | 1 | 3 |   |   | 6 | 5 |   |

|   |   |   |   |   |   |   |   |   |
|---|---|---|---|---|---|---|---|---|
|   | 4 |   |   | 7 |   |   |   | 9 |
|   |   | 5 |   | 4 | 8 |   | 1 |   |
|   |   | 1 |   |   |   |   |   |   |
| 4 | 3 |   | 1 | 9 |   |   | 5 | 8 |
|   |   |   | 8 |   | 2 |   | 4 |   |
|   |   |   | 7 |   |   | 5 |   |   |
| 1 |   |   |   | 5 | 6 |   | 3 | 2 |
|   | 6 |   |   |   | 1 |   |   | 4 |
| 7 |   | 9 |   |   | 4 |   |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6 | 9 | 5 | 7 | 4 | 1 | 8 | 2 | 3 |
| 2 | 7 | 1 | 6 | 8 | 9 | 3 | 5 | 4 |
| 8 | 3 | 2 | 4 | 5 | 6 | 7 | 9 | 1 |
| 3 | 2 | 8 | 9 | 5 | 6 | 7 | 1 | 4 |
| 8 | 9 | 5 | 7 | 1 | 2 | 3 | 4 | 6 |
| 1 | 6 | 7 | 8 | 2 | 3 | 5 | 9 | 4 |
| 9 | 2 | 6 | 1 | 4 | 8 | 5 | 7 | 3 |
| 7 | 1 | 2 | 5 | 9 | 8 | 6 | 4 | 3 |
| 5 | 8 | 4 | 6 | 7 | 9 | 2 | 1 | 3 |
| 5 | 9 | 1 | 7 | 8 | 6 | 2 | 3 | 4 |
| 7 | 6 | 8 | 1 | 2 | 3 | 4 | 5 | 9 |
| 3 | 2 | 8 | 6 | 9 | 5 | 7 | 4 | 1 |
| 9 | 4 | 2 | 5 | 8 | 7 | 1 | 3 | 6 |
| 1 | 7 | 6 | 2 | 3 | 4 | 8 | 5 | 9 |
| 8 | 5 | 1 | 9 | 6 | 1 | 2 | 4 | 7 |
| 2 | 7 | 4 | 8 | 5 | 9 | 1 | 6 | 3 |
| 4 | 1 | 9 | 8 | 7 | 6 | 5 | 3 | 2 |
| 6 | 8 | 5 | 3 | 1 | 2 | 9 | 7 | 4 |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 4季**  
기도의 방법

기도를 하는 목적은 여러 이유가 있다.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또는 본인의 수행을 위해, 그러나 여타 종교의 기도 법에 비해 유교 불교의 기도방법은 형식이나 마음가짐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집에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의의를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편안한 옷이라 할지라도 단정히 예의를 갖추기를 바란다고나 할까? 이런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기도를 생활화하는데 은근 불편한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더운 여름 날 끈 옷을 입고 있다가 바로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 다시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은근 번거로운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옷도 편안하나 정갈히 입고 양치질과 세수를 기본으로 함은 물론 기도 전에 술과 고기를 삼가도록 하고 있다. 신앙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다. 기도는 마음을 중시하고 그 마음에서 펼쳐 나온 것이 당연히 형식도 지배하기에 기도에 앞서 몸과 마음의 준비를 중요시 한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해선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 인간 사이에도 예의가 있을진대 가피를 구하고자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남과 시비를 일으키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리다보니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에 앞서 몸과 마음과 행동거지도 준비 작업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달랑 하루나 이틀 사흘이 아니라 기도 전에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라며 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입재(入齋)라 하는데 집에서의 기도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첫 날에 향후 며칠간 어떠한 발원으로 기도를 올리겠다고 고하는 것을 말한다. 시의적으로 화급한 일이라면 최소 7일기로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다. 정말로 날이 부족할 때는 천배, 삼천 배를 올리며 기도발원을 하기도 한다. 보통은 기도의 주제에 따라 기도 일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하나 기도발원을 할 때에는 가장 시급한 일 하나만 정해서 기도를 올리도록 한다. 온 가족의 소원성취를 일시에 발원하는 것은 욕심을 드러내는 일이다. 기도는 하심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회한한 것은 내려놓은 가운데 간절히 원할 때 중심이 전달된다는 것이다. 원하는 바가 감응되어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의 활동이라 얘기할 것이며 불교에서는 불보살님의 가피(加被)라 얘기한다. 기도준비를 하는 과정이 수고로운 것도 일종의 수행인 것이다. 그 가피를 받고 안 받고는 내게 달린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민족자주 선언한 남과 북



윤위중의  
잠시 살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상상 이상의 것들이 현실이 됐다. 수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단어는 '자주(自主)'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인한 '판문점 선언' 앞부분에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한반도의 비핵화, 남과 북의 경제교류, 핵실험장 공개적 폐쇄 등 연일 예상치 못한 과격 조치가 쏟아져 모든 게 충격적이었지만 두 정상이 언급한 '자주'란 단어만큼은 반드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치하 때 민족의 자주권을 잃어버렸다.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그 결과물로 얻은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땅을 둘로 갈라랐고, 6·25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지만 둘로 갈라진 땅은 합쳐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세계 7위의 무역국이 위상을 떨치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철강과 가정용 전자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자유무역협정(FTA)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협적이 됐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에게 자주성이 없다. 북한과의 휴전협정도 미국을 포함한 유엔과 북한·중국의 사령관들이 체결한 것이다. 안보는 외교나 국방보다 상위 개념이다. 국가의 안위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북한이 핵을 집요하려만치 물고 늘어지는 이유도 자주권 때문일 것이다. 남과 북의 국력 차는 이미 수십배 이상 커졌다. 전쟁을 벌여도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 없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미국과 남한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게 핵무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도보다리에 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민족 스스로

결정하자. 이제 우리는 그만쯤 컸다'는 자주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그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정상회담 대응자세가 '위장 평화 쇼'라며 폄하하고 있다. 이런 의심의 근거는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를 여덟 번이나 속였기 때문이다.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북한의 이번 같은 평화 제스처가 내심 못마땅할 것이다. 부모형제를 죽이고, 고향에서 쫓아낸 장본인이 이제와서 평화를 얘기하는 게 가당치도 않을 것이다. 그런 '경험적 측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의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자세를 보면 미국의 '코피작전'을 무마하기 위한 속임수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단 역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진짜 실행될지, 또 다시 거짓말이 될지는 전적으로 남과 북의 자주적 노력에 달려 있다.

아울러, 보수진영이 우려하는 것처럼 남과 북의 협력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홉번째 거짓말'로 변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플랜B'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산입부장 yjh@metroseoul.co.kr

# 이주열 'ASEAN·BIS회의' 등 참석차 출국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사진)가 오는 4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7~8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BIS 정례총재회의' 등 참석을 위해 3일 필리핀으로 출국한다고 2일 밝혔다. 귀국 예정일은 오는 10일이다.

이 총재는 오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역대 금융·경제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협정문정기점검 및 실효성 제고방안, AMRO(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 발전전략 등 역대 금융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한은 금통위원에 임지원 JP모건 본부장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라 오는 12일자로 함준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임지원 JP모건 서울지점 수석본부장(사진)을 추천한다고 2일 밝혔다.

임 후보는 JP모건에서 20여년간 한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은행연합회는 임 후보에 대해 "국내 은행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국내의 금융시장 및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 사



유를 설명했다. 임 후보가 금통위원으로 임명되면 이 성남 전 위원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위원이 된다. 임 후보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9년부터 JP모건에서 경력을 쌓아 왔으며, 현재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회의 의원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어벤져스3' 오역은 나몰라라



기지수첩  
김민서  
(온라인뉴스부 엔터팀)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이하 '어벤져스3')의 오역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단순한 해석 차이라면 모를까, 작품의 이해도와 시리즈의 개연성까지 떨어뜨린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어벤져스3'은 역대 최강의 악당 '타노스'에 맞서 전 세계의 운명을 지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벤져스3'의 국내 흥행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사전 예매는 120만 장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일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벤져스3'은 지난 1일 기준, 총 누적 관객수 597만6232명을 기록했다. 이렇듯 개봉 2주 차에도 막강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천만 관객도 머지 않았다.

그러나 관객이 늘어날 수록 '오역 논란'도 가속화되고 있다. 시리즈를 관통하는 대사마저 오역으로 뒤범벅돼, 관객의 이해도를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엔드 게임(End game)'의 의미다.

이 대사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타노스에게 넘겨준 뒤, 아이언맨에게 질타를 당할 때 등장한다. 그의 "We're in the end game now"라는 대사는 "이제 가망이 없어"로 해석됐지만 영화 맥락과 이어지지 않는다.

앞선 서사를 이해한다면 'end game'을 '최종 단계'로 보고, 타노스를 이기기

위한 마지막 한 수로 해석해야 옳다. 오역으로 인해 영화의 결말마저 뒤틀린 격이다.

살아있는 캐릭터를 사라지게 만든다거나, 우스꽝스러운 직역으로 영화의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렇다보니 관객들은 직접 해석을 찾아봐야하는 지경까지 왔다. 분노한 일부 관객들은 번역가 박지훈의 지속적인 오역 논란을 꼬집으며 청와대 청원까지 넣고 있다.

'어벤져스4'의 부제 'end game'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제목은 '어벤져스-가망없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논란이 '어벤져스3'의 흥행세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오랫동안 작품을 고대해온 관객의 목소리를 들려 들진 말아야 할 것이다.

/min0812@metroseoul.co.kr

# 평창올림픽 계기, 겨울 레포츠 홍보 시동

문체부·관광공, 홍보영상 제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관광 인지도를 활용해 겨울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이미지를 강화하고 동계 시즌 해외 관광객 유치에 목적으로 겨울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통이 일상인 온라인 유저 콘셉트를 활용해 전 세계인이 즐겨 사용하는 SNS 채널의 특징을 살려 더욱 트렌디하고 생동감

있게 제작됐다. 영상의 주요 소재로는 겨울 대표 스포츠인 스키와 눈썰매를 비롯, 눈 내리는 한옥에서 다과를 즐기는 장면, 전통시장에서 음식 즐기, 겨울축제, 겨울밤 캠핑 장면 등을 활용해 한국은 추운 눈의 나라에서 따스한 활동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임을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91@



현대약품 봉사단 두레회, 죽전원 찾아 봉사활동

현대약품의 사회봉사단 '두레회'는 지난달 29일 천안시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죽전원'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두레회 회원 20여 명은 이날 시설 내의 농장 잡초 제거, 주변 시설 청소 및 환경 정화 활동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으며, 이들을 위한 각종 후원 물품도 전달했다.

/현대약품

# 장애인 등 실종 대비 '지문 사전등록' 하세요

서울우유-경찰청, 안심등록 캠페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경찰청과 함께 '지문 사전 등록제' 장려를 위한 '안심등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생산되는 제품 2종 표지에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문구 및 이미지를 삽입했다. 적용되는 제품으로는 6월 30일까지 생산되는 '흰우유 200ml'와 9월 30일까지 생산되는 '나100% 1L'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정식품 '사랑나눔 캠페인' 통해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

정식품은 지난달 26일 한국심장재단에 심장병 환자를 위한 '사랑나눔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정식품은 사회공헌 활동인 '사랑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19년째 꾸준히 심장병 환자의 수술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한국심장재단에 전달된 후원금은 2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4억7000만원의 후원금을 심장병 환자들의 수술비로 지원했다.

/정식품

-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 국장급 전보 △ 투자정책관 이호준
  - ◆코스닥협회 ◇ 부장대우 승진 △ 연구정책본부 법제팀장 진성훈 △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장 정익송 △ 경영지원본부 홍보·IR팀장 노수찬 ◇ 차장대우 승진 △ 회원서비스본부 회원업무팀장 신영재 △ 회원서비스본부 회원지원팀 경미선 △ 연구정책본부 경제팀 김변주
  - ◆한국증권금융 ◇ 상무 △ 흥인기 신탁본부장 △ 이병렬 영업부문장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2002년 5월 31일 정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100206  
제3949호 / 0043호

- ◆NH투자증권 ◇ 신규선임 △ 투자금융부장 이주현
  - ◆스포츠클럽 △ 편집국 체육부장 권기범
- 부음**

▲ 조충현씨 별세, 조민성(티에스디글로벌 상무이사)·미경(전 현대엘파트너스 이사)·영희(웨딩인 본부장) 부친상, 이제훈(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장인상, 김현빈(텍사스인스트루먼트 코리아 부장) 시부상 = 1일 오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5월 4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00

▲ 이원출씨 별세, 이동춘(한국성장금융 대표)·동길(유니인포 대표)·동환(심팩 부사장)씨 부친상, 조주현(코스모넷 대표)씨 장인상 = 1일, 서울성모병원(강남)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 40분. 02-2258-5940

▲ 장일향씨 별세, 한양수(자영업)·태수(전 ㈜포월드 이사)·천수(기아자동차 재경본부 부사장)·중우(㈜투바신 대표이사)씨 모친상 = 2일 오전 4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포천 천보묘원. 02-3010-2230

# 공공기관 채용 겹돈다

올 1분기 채용 6515명에 그쳐 정부, 하반기에 목표 달성 계획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공공기관 채용을 중점 추진해 올해 목표인 '2만8000명+α'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65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치인 2만8000명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치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2만3000명으로 설정하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목표치

는 5300명으로, 정부는 이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청년 구직난이 계속돼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연간 신규채용 목표를 5000명 늘렸다. 수시 증원과 퇴직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한 명예퇴직 활성화로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만약 1분기와 같은 속도로 연말까지 채용한다면, 올해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2만6060개에 그치게 된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분기에만 25%인 7000명을 채용해야 했지만 23%에 그쳐 약 500여명 가까이 모자란 셈이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이 3777명을 뽑아 전체의 절반 이상(58.0%)을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은 전체의 31.4%인 2045명을 채용했다. 세부적으로는

기금관리형이 725명

(11.1%), 위탁집행형이 1320명(20.3%)분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기업은 10.7%인 694명을 새로 채용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355명(5.4%), 준시장형 공기업은 339(5.2%)명에게 일자리를 줬다.

정부는 증원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만약 정부가 올해 목표대로 2만8000명을 채용한다면 지난해 2만2554명보다 24.1%를 더 뽑는 셈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5년 9.5%를 정점으로 2016년 8.7%, 2017년 7.4%로 둔화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월에 목표를 상향 조정해 현재는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진도상으로는 2만8000명을 달성하기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채용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기자 grandtrust@

# 54% “취업지원 잘 몰라”

(구직자)

35%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용 '기업 생태계 조성' 보완 필요성

구직자 절반 이상은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려진 취업정책 중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구직자 464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3%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꼽았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2년 이상 정규직 근무 시 정부와 기업 지원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최대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2년형에, 올해부터 최대 3000만원까

지 적립할 수 있는 3년형과 5년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다.

구직자들은 이어 '소득세 감면'(23.5%), '내일채움공제'(15.7%), '전월세 보증금 대출'(13.4%), '산업단지 교통비 지원'(12.1%) 순으로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구직자 절반 이상(54.3%)은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해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긍정적이다'는 답변은 34.3%로 나타났고,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11.4%로 적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취지가 좋아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여겨짐'(49.1%·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입사 의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 이상(52.8%)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답했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44.2%였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3%였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45.7%·복수응답)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마련'(41.8%),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제재'(33.2%), '재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32.8%),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정책 마련'(13.4%)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중 가장 크다고 느끼는 것은 '연봉'(45.9%)으로 나타났고, 이어 '복리후생'(25.4%), '근무 환경'(11.2%), '안정성'(8.6%), '주변의 인식'(3.4%)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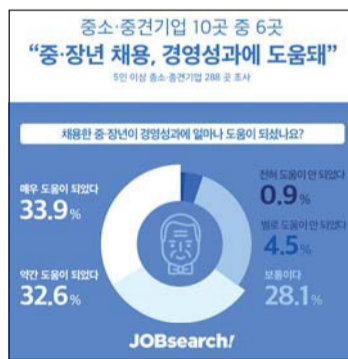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상명대 '제자사랑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1일 오후 천안캠퍼스에서 재직중인 동문교수 30여명이 재학생 19명에게 9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자사랑,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 손하트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명대

## 中企 “중장년 채용, 경영성과 도움”

66.5% 기업에 '긍정적 영향' 노하우 전수 등 업무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은 중장년 직원 채용이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알바천국이 운영하는 채용정보 검색사이트 잡서치는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3월27일~4월9일까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88곳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중견기업의 채용계획 및 중·장년 채용인식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설문 결과 최근 3년 사이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중견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76.7%인 221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66.5%는 채용한 중·장년이 경영 성과에 '매우 도움이 됐다'(33.9%)거나 '약간 도움이 됐다'(32.6%)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별로 도움이 안됐다'(4.5%)거나 '전혀 도움이 안됐

다'(0.9%)는 부정적 답변은 소수였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은 분야로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 제고'(32.5%), '업무 충성심, 성실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28.7%), '업무 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16.1%), '매출증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14%),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조직융화'(8.7%) 등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중·장년의 평균 근속 연수는 6개월 이하(7.2%), 1년 이하(19.5%), 3년 이하(46.6%)로, 재취업 3년 내 퇴사 비율은 73.3%로 집계됐고, 5년이하 19.9%, 5년초과 6.8%였다. /한용수 기자

## 성비위 은폐·무대응 등 징계기준 신설 추진

사학·학교재단도 징계 대상 교육부-자문위 개선안 논의

사학 및 학교재단이 성비위를 은폐·축소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자문위 권고를 받아 들어,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난 4월 21일 오후 대구 중앙로 중앙파출소광장에서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를 하고 있다. /연남뉴스

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

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이뤄져 왔다.

법이 개정되면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함께 개정해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음화반포나 공연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폭력비위와 관련된 세분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나 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하는 상세 대응 메뉴얼을 초·중등학교용과 대학교용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메뉴얼에는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과 대응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신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국제정보보호대학원(원장 김관규)이 2018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는 오는 18일까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홈페이지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설립 30년을 맞는 언론정보대학원은 ▲신문방송학과(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텐츠전공) ▲광고홍보학과(광고홍보전공) ▲인쇄출판학과(출판잡지전공, 인쇄화상전공)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외국인 신입생은 별도로 모집한다.

1998년 국내 첫 설립된 정보보



안관련 전문교육기관인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모집학과는 ▲정보보호학과(정보보호전공, 블록체인전공) ▲사이버포렌식학과(사이버포렌식전공) 등이다.

'블록체인 전공'은 이번 학기 정규석사 교육과정으로 신설돼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동국대는 지난 2016년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산하에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한용수 기자

#### 성신여대, 9일부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은 오는 9일부터 8일 간 2018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5곳으로 6월 9일 전형을 치르고 7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각 대학원 지원 자격은 신입학의 경우 학사(석사) 취득자 또는 2018년 8월 학사(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법령에 의해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남녀 모두 지원 할 수 있다.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 분야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전형방법은 서류(성적) 50%와 면접 및 구술시험 50%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일괄 합산해 전체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예능계열은 실기평가가 요소가 추가된다.

지원서는 오는 17일 17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com)에서 접수할 수 있고, 서류제출은 18일 17시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 주말 예약 99% (2주전 예약시)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2시간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 595만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 곳  
동일전망대·화진도·송지호와 금강산 비경을 간직한 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 분양 하계 휴양소, 연수 문의

**02)541-0113**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 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페밀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 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1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필리핀 세부 중국 청도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 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제로만 분양을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 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 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는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급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100만원  
기업은행 244-025348-04-029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 일본 니가타 골프 창립 회원 모집

그린피, 온천 무제한, 골든우드+청광아이스.C.C 창립회원 모집, 동부해발 600m 고원지대

올포함 중식 별도  
7박 9일 답사라운딩 **149만원**

**회원혜택 (495만원)**

- ◆ 천연온천 무제한 무료 / 2곳 골프장 그린피 무제한 무료
- ◆ 골프장에서 회원증 발급 / 10년 만기후 연장가능
- ◆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골프장 회원혜택

해발 1,300m  
일본 마다라오 탕그램 4일 **119만원** ~

아시아나 항공 이용  
일본 북해도 루스츠 4일 **119만원** ~

일본 고마츠 가타야마츠 4일 **139만원** ~

매주 목요일 출발  
아와지 스프링스 4일 **139만원** ~

매주 목요일 출발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5일 **80만원** ~

매주 목요일 출발  
위해 호당가 3일 **599,000원**

골프 + 관광  
몽골 울란바토르 **3박 169만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5월 3일 단 1회 출발  
보르네오.C.C **5일 99만원**

| IL tour 골프 특가        | 태국                        | 중국 중국 및 한국 연휴 별도 문의       | [국내골프] 5월요금             |
|----------------------|---------------------------|---------------------------|-------------------------|
| 필리핀                  | * 카오야이 파노라마 1박 80,000원    | * 웨이하이 포인트CC 3일 129만원     | * 여수 경도 1박2일 34만 5천원 ~  |
| * 마닐라 갈랏랏 1박 6만원     | * 베스트오션CC 1박 80,000원      | * 연태 단형.C.C 4일 649,000원 ~ | * 웰리힐리 1박2일 24만원 ~      |
| * 마닐라 스폴랜드 1박 5만원    | * 워터빌CC 1박 80,000원        | * 곤명 윈드밸리CC 5일 129만원      | * 전남 보성 1박2일 17만 5천원 ~  |
| * 마닐라 KC힐크레스트 1박 2만원 | * 힐사이드CC 1박 50,000원       |                           | * 현대더링크스 1박2일 21만 7천원 ~ |
| * 세부 인터내셔널 1박 4만 5천원 | * 방콕 다이내스티 1박 80,000원     |                           | * 용평 버치힐 1박2일 24만 5천원 ~ |
| * 클락 뉴아시아 1박 7만원     | * 방콕 시내 4석 골프 1박 120,000원 | 일본 일본 및 한국 연휴 별도 문의       |                         |
|                      |                           | * 미야자키 니치난 3일 629,000원 ~  |                         |

| IL tour 문의  |
|-------------|
| 02-541-4242 |

## 원적외선 웰빙 사우나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 미용, 수험생을 위한 실내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자동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2인용 365만원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5~6인용  
농막, 캠핑 하우스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 “데드풀2, 어벤져스엔 없는 매력 보여줄 것”

##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놀즈’ 출연 영화 ‘데드풀2’ 기자간담회



마블 역사상 최고의 악동 히어로 ‘데드풀’이 액션, 유머, 스케일 모든 면에서 더욱 강력해진 ‘데드풀2’ (감독 데이빗 레이치)로 돌아온다.

2일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는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놀즈가 참석한 가운데 영화 ‘데드풀2’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전날 한국에 도착해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러 라이언 레놀즈는 “새벽 3시부터 공항에 도착해 나를 기다려준 한국 팬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환대받을 줄 몰랐고, 영광이다. ‘데드풀2’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작 ‘데드풀’은 전대미문의 히어로 등장으로 알려지며 압도적 호평과 함께 흥행에 성공했다. 월드와이드 R등급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청불 외화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으며 331만 관객을 동원해 인기를 입증했다. 이러한 데드풀의 귀환에 영화팬들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라이언 레놀즈는 캐릭터와 혼연일체된 완벽한 싱크로율로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연부터 제작, 각본 참여까지 1인 3역을 소화했기 때문에 감회는 더욱 남다를 터.

“‘데드풀’이 탄생하기까지 11년이 걸렸고,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드풀2’가 2년만에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웃음) 오랫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관객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부담도 됩니다. 이번 ‘데드풀2’ 역시 성인을 위한 영화입니다. 전편보다 이야기가 확장됐고, 가족적인 영화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데드풀이 말을 많이 하는 진망스러운 캐릭터다보니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배우 라이언 레놀즈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영화 ‘데드풀2’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데드풀2 스틸컷. /이심세기폭스코리아

### 라이언 레놀즈, 주연·제작·각본 참여 ‘엑스포츠’ 결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유머감각·근거없는 자신감이 매력”

노련한 점도 덧붙였다.

영화 ‘데드풀2’는 액션은 기본, 거침없는 입담과 유머로 중무장한 마블 역사상 가장 매력터지는 히어로 데드풀이 미래에서 온 위기의 히어로 케이블(조슈 브롤린)을 만나 원치않는 팀 ‘엑스포츠’를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매력적인 외모와 완벽한 비율로 미국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선정된 라이언 레놀즈는 작품 안에서 전신을 뒤덮는 수트를 입거나 화장 분장으로 외모를 가려야 했다.

그는 “데드풀은 못생긴 남자가 주인공이어야 한다. 외모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수트는 입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다른 사람이 벗겨줘야 한다. 촬영 초반에는 폐쇄공포증이 올 정도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가장 최악은 ‘새로운 수트’의 등장

다. 오토바이탈 때 입는 수트는 평소 수트와 또 다르다. 그건 재질도 단단하다. 바닥에서 한 시간 정도 뒹굴면서 착용한다”고 밝히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작품에서 데드풀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케이블 역은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로 잘 알려진 조슈 브롤린이 맡았다.

데드풀과 케이블을 대적하는 유일한 여성 히어로 도미노 역에는 재지 비츠가 캐스팅됐다. 직접 오디션으로 재지 비츠를 캐스팅한 라이언 레놀즈는 “첫 대사를 할 때 이미 ‘도미노 역을 찾았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즉흥적으로 흘러가는 리딩을 자연스럽게 받아치는 게 완벽했다고.

이번 ‘데드풀2’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팀 ‘엑스포츠’에 대한 관객의 궁금증도 상당하다. ‘엑스포츠’에는 전편에서 활약한 네가소니 틴에이지 워헤드를 비롯해 케이블과 도미노, 비밀에 부쳐진 멤버까지 이색 케미를 선보일 전망이다.

“‘데드풀2’ 이후에 ‘데드풀3’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나오게 된다면 ‘엑스포츠’가 아닐까요? 그들은 어벤져스와는 다릅니다. 윤리적인 강인함과 도덕성은 결여된 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벤져스같은 착한 히어로들이 못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웃음)”

끝으로 라이언 레놀즈는 “데드풀은 다른 슈퍼 히어로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어벤져스와는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영화는 캐릭터들이 관객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랑받을 거라고 자신한다”며 “세련된 유머감각과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톡톡뽐낸 데드풀의 매력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데드풀2’가 ‘데드풀’의 관객수를 뛰어넘는다면 카메라 앞에서 ‘소주’ 한병을 원샷할래요. 정말 말도 안되는 공약을 한 것 같네요. (웃음)”

영화 ‘데드풀2’는 오는 16일 국내에서 전세계 최초 개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내일 코엑스서 ‘SM타운 뮤지움’ 오픈

서울 코엑스아트홀에 ‘에스엠타운 뮤지움(SMTOWN MUSEUM)’이 오픈된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2일 “새로운 전시·엔터테인먼트 체험공간 ‘SMTOWN MUSEUM’이 오는 4일 코엑스 아트홀에서 오픈된다”고 밝혔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자사 아티스트들의 히스토리를 집대성해 상시적으로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보이는 것은 ‘SMTOWN MUSEUM’이 처음이다.

아트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SM의 복합문화공간으로, ‘SMTOWN MUSEUM’은 아트홀 3층에 오픈된다. SM 아티스트들의 데뷔부터 현재까지



의 역사를 비롯해 앨범, 활동 의상, 소품 등을 총망라해 SM 아카이브를 집대성한 만큼 한류의 새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뿐만 아니라 SM의 콘텐츠 제작 과정 관람,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SM 아티스트와 가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 등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돼 있어 기대감이 높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韓 뮤지컬 ‘헤드윅’ 대만 무대 오른다

7월 20일부터 3일간 공연

대한민국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헤드윅’이 국내 무대를 넘어 대만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헤드윅’은 오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내셔널 타이중 시어터(National Taichung Theater)에서 공연된다. 한국 ‘헤드윅’의 저력을 보여줄 이번 공연에는 ‘헤드윅’ 역에 배우 오만석과 마이클 리가 출연하며, ‘이즈학’ 역에 배우 전혜선 제이민이 함께한다.

지난해 국내 공연과 마찬가지로 오만석은 한국어 버전 공연을, 마이클 리는 원어 버전 공연을 선보인다. ‘전설의 헤드윅’으로 불릴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



휘한 오만석은 대체 불가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뮤지컬 ‘헤드윅’의 위업을 다시금 입증한다. 탁월한 가창력과 폭발하는 에너지로 좌중을 압도한 ‘헤드윅’ 마이클 리는 원어 버전 무대를 통해 현지 관객들과 교감하게 된다.

이번 대만 공연을 주최하는 내셔널 타이중 시어터는 대만 국립 공연예술 센터 산하 1호 국립 극장이다. 최첨단 시설과 격조 있는 예술적 설계를 겸비한 이곳은

여행객이라면 꼭 가봐야 할 랜드마크로 손꼽힌다.

브로드웨이 원작의 라이선스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버전 뮤지컬 ‘헤드윅’이 해외 무대에 진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뮤지컬 ‘헤드윅’의 대만 진출은 한국 ‘헤드윅’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한편, 한국 뮤지컬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 아트 티켓에서 회원 가입 후 구매가 가능하다. 뮤지컬 ‘헤드윅’은 7월 타이중 공연을 마친 이후, 8월 중순, 타이베이 공연을 추진 중이다. 타이베이 공연의 장소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5 | 해질 / 19:23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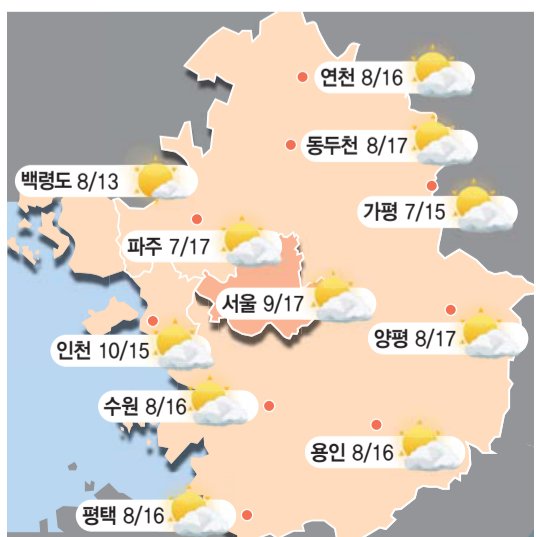
3일

음력 : 3월 18일

수도권 날씨

17~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스포츠 한줄 News

▲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사진)가 카림 벤제마의 2골 활약을 앞세워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꺾고 2017-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클레이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꺾을 만한 8명 선수를 소개하면서 정현을 언급했다.

▲ 한국 탁구를 빛낸 ‘왕년 스타’ 유승민, 유남규, 현정화가 지난 1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총회에서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부산 유치를 만장일치로 성공시키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 상승세를 타고 있는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3일 오전 10시 40분(한국시간)에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올 시즌 4승에 도전한다.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공 1개로 4번 출루했다. 홈은 두 번 밟았다.

▲ 정우람(한화 이글스)이 5년 연속 10세이브 달성까지 1개만을 남겨뒀다. 1세이브를 추가하면 KBO 역대 5번째로 5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하는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는 14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육석을 가리기 위해 국내 K리그 점령에 집중한다.



[산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국 전선서 전기차 사업 논의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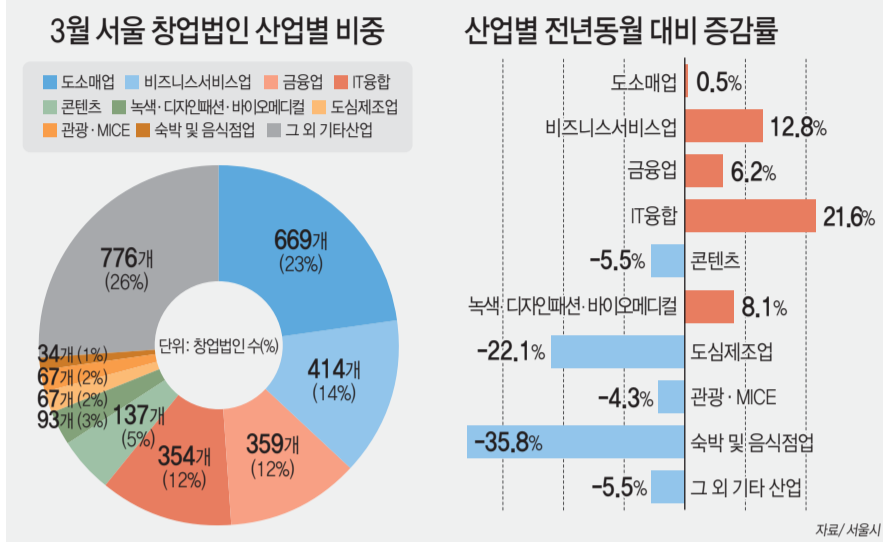
Life

[산업] 현대모비스 주주친화정책 세가지 방안 발표 05



# 서울, 3월에만 2970개 창업... 일자리 1만3166개 생겼다

서울시, 도소매·IT 산업 창업 늘고 숙박·음식점업·도심제조업 줄어 권역별 일자리 동북권↑ 서북권↓



서울시에서 3월 한 달간 2970개의 법인이 신설돼 1만316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소매·비즈니스서비스·금융·IT융합 등 주요 4개 산업이 창업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2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창업 법인과 일자리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를 개발해 발표했다.

시와 연구원이 개발한 지표는 중소기업부의 '신설법인 동향'과 달리 산업별·세부지역별로 서울의 창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3월 한달 동안 창업한 법인은 2970개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산업

별로는 도소매업이 669개로 가장 많았고, 비즈니스서비스업 414개, 금융업 359개, IT융합 354개 순이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IT융합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6% 상승했다. 비즈니

스서비스업은 12.8%, 녹색/디자인/패션/바이오메디컬은 8.1%, 금융업은 6.2%, 도소매업은 0.5%로 뒤를 이었다. 숙박·음식점업은 -35.8%, 도심제조업은 -22.1%로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127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남권 840개, 동북권 330개, 도심권 311개, 서북권 216개 순이었다.

5대 권역별 중 동북권(20%)과 서남권(3%)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증가했지만, 서북권(-15%), 동남권(-15%), 도심권(-11%)은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동북권에 속하는 성북구(28%), 광진구(24%), 중랑구(20%), 성동구(16%), 노원구(12%)에서 창업기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시에 따르면 3월 법인 창업으로 총 1만 3166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법인창업지수는 1.5% 증가했지만, 일자리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감소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도소매업의 일자리 감소와 법인 평균종사자수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금융업의 일자리 감

소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3029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금융업이 1856명, 비즈니스서비스업이 14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일자리 창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크게 줄어든 산업은 숙박·음식점업(-34%)과 도심제조업(-33%)이었다. 반면, 녹색/디자인/패션/바이오메디컬(14%), 비즈니스서비스업(13%), IT융합(4%)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났다.

권역별로는 동북권(20%), 서남권(3%)에서는 증가했고, 서북권(-15%), 동남권(-15%), 도심권(-11%)에서는 감소했다.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지표 개발을 통해 구체적이고 시의성 있는 현황자료로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소방시설 주변 '잠깐 정차'도 즉시 단속

서울시, 도로교통법 개정... 단속 강화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부터 소방 시설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서울시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부터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 시설 5m 이내에 잠깐의 정차도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시는 자치구,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합동 계도·단속도 진행한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이 차량정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C-페스티벌 2018' 개막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페스티벌 2018' 개막식에서 20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홍보대사 몬스타엑스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종합 시공기준, 정부 코드에 맞춰 개편

토목·건축·조경 등 7개 분야 재구성

서울시는 발주 공사의 종합적인 시공기준이 되는 '전문시방서'를 정부의 표준시방서에 맞춰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전문시방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지침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공사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분야는 ▲토목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정보통신설비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총 7개다.

시는 지난 2000년 제정해 각 분야별로 운영해오던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정부가 2016년 마련한 '표준시방서 통합 코드(KCS)' 체계에 맞춰 재구성했다.

시는 정부 체계에 따라 전문시방서를 3개 분야(공통, 시설물, 사업), 14개 공사, 총 865개 코드로 구성했다.

아울러 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시방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현장활용서'도 함께 마련했다.



공사 현장 이미지. /픽스타

코드화된 서울시 전문시방서는 3일 시보 고시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최신 기술지침을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시방서에 코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제·개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덕수궁 돌담 따라 역사여행... 정동 일대에서 '봄 밤' 즐겨보자

서울 중구, 11~12일 정동야행 개최



구 러시아공사관 야간경관. /서울 중구

봄기마져 영롱한 5월, 정동 일대에서 역사와 문화의 밤을 만끽해보는건 어떨까.

서울 중구는 11~12일 정동 일대에서 '세계를 품고 정동을 누비다'를 테마로 정동야행을 개최한다. 정동야행에는 시설 야간 개방과 함께 문화행사, 정동 도보 투어, 덕수궁 돌담길 체험프로그램, 거리 공연, 정동 야경관광, 예술 장터 등이 마련됐다.

정동야행은 11일 오후 6시 근대복식 퍼레이드인 '정동야행'을 시작으로 덕수궁 중화전 앞에서 공식 개막식을 진행한다.

올봄 정동야행에는 덕수궁, 시립미술관, 정동극장, 서울역사박물관 등 대가장 많은 38개 역사문화시설이 야간 개방

에 참여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구는 개방된 시설을 돌면서 행사 리플릿에 7개 이상의 도장을 찍어오거나 '중구 스토리 여행' 앱을 통해 7개 이상의 발도장을 받아 온 관람객들에게 캘리그래피 기념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탬프

3개를 받으면 인근 60여개 음식점에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동야행의 간판 행사인 고궁음악회는 이틀간 덕수궁의 밤을 밝힌다. 11일 오후 7시에는 국악소녀 송소희, 가수 정동하, 천단비 등이 출연해 흥겨운 국악과 감미로운 발라드로 고궁의 밤을 물들인다.

고종이 머물며 대한제국의 상징이 된 덕수궁 석조전은 축제기간 오후 6시와 7시, 총 4회 연장 개방한다.

정동야행이 처음인 방문객은 정동야행 홈페이지에 소개된 4개의 추천코스를 참고해 불만하다. 코스로는 음악 콘텐츠를 따라 즐기는 '열린 정동음악회',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은 '정동테마기행' 등이 마련되어 있다. /김현정 기자

 KB 금융그룹

# 요즘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의 아지트, 어딘 줄 알아?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고  
남들 안 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보면서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먼저 열어가는 사람들

여기는 시작부터 남다른 사람들의 아지트,  
[KB 이노베이션 허브]입니다

##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다른 시작

KB금융그룹이 지원합니다